

# The Hyowo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효원영어영문학

February  
2024

4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효원영어영문학

제 42 호

2024. 2

## 목 차

장 주네의 『하녀들』에 재현된 권력관계의 해체와 헤테로토피아의 가능성

김 채 현 / 1

『닫힌 방(No Exit)』을 통해 본 인간 존재의 구성: 생과 지옥의 대비

이 지 아 / 23

Revisiting Realism and Modernism through the Lukácian Lens

Cui Wenwen / 47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Request Speech Acts  
for English by Native Russian and Native American English  
Speakers

Orazbekova Aidana / 65



## 장 주네의 『하녀들』에 재현된 권력관계의 해체와 헤테로토피아의 가능성

김 채 현\*

### I. 서론

스스로가 고아이자 도둑, 남창, 강도였던 장 주네(Jean Genet)는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보다는 숨겨진 지하세계, 하녀, 매춘부, 성 소수자, 그리고 사회적 추방자 등의 소수자들을 무대의 중심으로 데려온다. 그는 『발코니』(*The Balcony*, 1957)에서는 성 노동자를, 『검둥이들』(*The Blacks*, 1958)에서는 인종적 소수자를, 『병풍』(*The Screens*, 1961)에서는 식민지 국민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올린 바 있다. 주네의 극은 “환상, 부조리, 호모 섹슈얼리티, 낙오자, 그리고 안토닌 아르토(Antonin Artaud)와 루이지 피란델로(Luigi Priandello)와 같은 잔혹성을 극적 테마로 삼는 반항”(Kang 3)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주네의 개인사에서 비롯한 반항적 성격은 그의 작품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며, 이 반항은 주류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인물들에 의해 수행된다.

강도, 절도 등의 수많은 범죄와 오랜 방랑자 생활로 악명 높은 장 주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가장 독창적이고 강력한 작가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다. 주네의 극작품은 파리, 뉴욕, 런던 등의 무대에 올랐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작품들 중 하나이며, 그는 빅토르 위고(Victor Hugo),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와 더불어 “소설과 극작 두 장르 모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Jones 1) 몇 안 되는 프랑스 작가 중 하나이다.

주네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도둑질을 시작했고, 이후 소년범 수용기관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소년원에서의 5년의 생활 동안 그는 같은 수감자들에게 의해 성적 정체성에 눈을 떴고 곧 매춘을 하였다. 그 후 유럽을 떠돌아다니며 방랑자 생활을 하던 주네는 주로 구걸, 성매매, 절도, 강도 등으로 생활을 연명

---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했다. 23살이 되던 해 스페인의 감옥에 수감된 그는 열정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으나, 그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로 인해 1948년에도 법정형을 살아야 하는 신분이었다. 그러나 장 콕토(Jean Cocteau),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와 같은 인사들의 주네의 범죄 이력을 사면해 달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주네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고 이후 그는 소수자들을 위한 정치 운동에 뛰어들었다. 1970년대부터 1986년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네는 죄수, 이주노동자, 그리고 특히 미국의 블랙 팬서(Black Panthers)와 팔레스타인인들을 변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물질주의, 노동의 기계화, 지속적 우정의 의무, 심지어는 예술적 업적의 허영심”(White 32)까지 거부했다.

소수자와 방랑자의 길을 기꺼이 택하며 그 자체가 “반항의 화신”(Madhuri 3)인 주네의 작품에는 반항의 분위기가 여과 없이 표출되며 이는 권력의 위계질서를 뒤흔든다. 주네가 작품 속에서 사용하는 역할극(role playing)이나 복장 도착(cross-dressing)과 같은 기법은 “성, 계급 등의 영역에서 권력의 작동을 분열”시키고(5), 이때 극 무대는 권력을 무대 위로 불러내어 그것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는다. 하녀, 매춘부, 범죄자들과 같은 약자들은 무대 위에서 “지배적 권력 구조의 항구적 감시에서 풀려나”(5) 극의 중심이 된다. 주네가 그의 작품에서 권력을 다루는 방식은 이처럼 특권층(overclass)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소수자들과 그들의 환상 혹은 망상, 그러나 그로 말미암은 변화 가능한 정체성과 위계의 전치이다. 주네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영웅은 가장 위대한 범죄자”(Yusurf 22), 즉 “가장 위대한 반항아”(22)이다. 그의 무대에서는 범죄자가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며 성자이자, 관객들을 마주하는 주체이다.

주네는 『하녀들』(*The Maids*, 1947)에서 경제적, 계급적 약자인 하녀들을 극의 중심으로 데려온다. 『하녀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933년 프랑스의 파팽 자매(Papin Sisters)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하녀가 주인을 살해했다는 사실과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당시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이다<sup>1)</sup>. 경찰은 여주인 란셀린(Lancelin)과 그의 딸이 심하게 구타당했으며 시체가 잔혹하게 훼손당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을 살해한 크리스틴 파팽(Christine Papin)과 레아 파팽(Lea Papin)은 검거 당시 서로를 껴안고 있었으며, 순순히 그들의 범행을 시인했고 저항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프랑스의 언

1) 이 사건에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는 장 주네의 『하녀들』과 더불어 클로드 샤브롤(Claude Chabrol)의 『의식』, 봉준호의 『기생충』 등이 있다.

론 매체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들의 관심은 파팽 자매가 “어떻게 자신의 고용주를 죽였나”(Genca 16)가 아니라 왜 그들을 죽였느냐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후 언니인 크리스틴은 사형을 선고받고, 동생 레아는 10년 형을 받았으며,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언니인 크리스틴이 종신형으로 감형되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들은 “매스 미디어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스타 살인자가 되었다.”(Lucas 298) 주네는 『하녀들』에서 실제 파팽 자매 살인 사건의 끔찍한 범죄의 물리적 폭력적 양상을 따르는 대신 “심리적인 폭력에 집중”(Genca 17)했다. 부르주아 계층 가정집의 침실에서 시작하는 연극은 하녀들의 마담-하녀 역할 놀이가 주를 이루며 그들의 마담 살해 계획은 신체적 폭력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마담의 살해는 실체가 아닌 그들의 역할 놀이 속에서만 이뤄진다.

비록 주네가 『하녀들』이 노동자로서의 하녀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작품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지만, 주네 본인이 평생 소수자에 속해 있었다는 점과 표면적 대립 관계에 있는 하녀와 주인이라는 인물 설정으로 기인해 이를 계급을 중심으로 한 욕망, 모방 등의 주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파라 알리(Farah Ali)는 주네의 지배적 계급 체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억압자들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 스스로를 자아와 타자로 분리하여 그들이 처한 배제와 타자성을 강조”(Ali 82) 하는 것을 통해 이뤄짐을 루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의 모방이론과 연결해 논의했다. 내부로부터 지배체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주네는 역할극과 같은 방법으로 약자의 모방을 그들의 회생과 억압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본질을 그들의 억압자와 병치시키는 인물들을 통해”(82), 이리가레이의 용어를 빌리자면 보이지 않는 이들(the invisible)을 드러냈다. 사마나 마드후리(Samana Madhuri) 또한 주네가 『하녀들』을 통해 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것은 위계질서와 계급을 나누는 이분법이라 말하며 무대는 이러한 위계와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무대로 가져오고, 그의 무대를 “체제 전복적 잠재력”(3)을 가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신성한 강단”(3)으로 보았다. 국내 연구로는 김효가 『하녀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젠더화 된 최하위 계층으로 존재하는 하녀들”(228)을 주인공으로 “인간의 욕망과 좌절, 절망과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라 언급하고 이를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이론으로 분석했다(228). 김숙현 또한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으로 『하녀들』을 욕망과 주이상스를 결부시켜 분석하여 주네의 극작품을 “증상의 연극”(240)이라 칭한 바 있다.

본 논문은 『하녀들』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인과 하녀라는 특수한 위계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하녀들의 저항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하녀들이 기거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녀들』을 분석한 논의가 없다는 데에 주목한다. 따라서 『하녀들』에 나타나는 권력관계를 단순히 지배-피지배 계급을 뒤집는 체제전복적 시도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하녀들이 기거하는 특수한 환경인 주인의 집, 즉 마담의 집이라는 공간에 집중하여 어떻게 하녀들이 주인의 공간을 점유하고 이 공간에 이의제기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즉, 마담(Madame)의 집에서 하녀들이 공간에 제기하는 이의제기가 어떻게 마담과 하녀 사이에 확립된 권력적 질서의 전치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마담의 집에 확립되어 있던 권력관계를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공간으로 변모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위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와 유토피안적인 몸(utopian body)의 담론을 가져와 『하녀들』의 두 하녀 클레르(Claire)와 솔랑주(Solange)가 갖는 저항의 가능성과 한계를 각각 논한다.

1984년 출판되어 대중에게 소개된 이래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분석의 틀이 되어왔다. 목요일 오후 부모의 침대부터 묘지, 정원, 도서관, 매음굴, 감옥, 식민지에 이르기까지 푸코가 단편적으로 제시한 헤테로토피아의 여러 가지 예시들은 우리 일상 어디에나 퍼져 있으며 그로 인해 공간을 사유하는 데 충분히 매력적인 해석의 토대가 된다. 또한 그의 1966년 12월 ‘프랑스-컬튀르(France-Culture)’ 채널 특강 시리즈 라디오 원고에서 「헤테로토피아」와 함께 있었던 「유토피아적인 몸」은 또한 개인의 신체 그 자체가 가지는 헤테로토피아적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주인이 없는 주인의 집을 하녀들이 차지함으로써 생성되는 이질적인 반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가 하녀들에게 마담의 위치로 들어갈 기회를 제공하여 공간의 주인이 뒤바뀌는 기회를 준다고 상정하고, 이를 통해 위계적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주인과 하녀의 권력관계에서 하녀들이 갖는 해방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치학적으로 분석한다.

## Ⅱ. 권력관계가 해체되는 헤테로토피아와 마담의 집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사후 1984년에 출판되어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된 「다른 공간들」(“Of Other Spaces”)에서 푸코가 단언했듯이, 현시대는 공



간성의 시대(the epoch of space)이다. 현시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지점이 연결되고, 교차 되는 연결망의 시대, 즉 공간의 배치 관계가 중요한 공간적 전회로의 시대이다. 병렬, 인접성, 동시성, 분산의 특징을 가지는 공간의 시대는 장소 간 관계의 형성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공간이 가진 배치 관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배치를 규정하는 지점들과 요소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두드러진다. 이제 불안 또한 시간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그저 공간 속에 퍼져 있는 요소들의 다양한 작동기법 중 하나로 나타날 뿐이다. 배치 관계가 오늘날 공간의 에피스테메이며, 공간 속 인간의 위치라는 것은 이러저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축적되고, 순환되며, 측정되고, 분류되는지를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개인이 속해 있는 세계와 개인과의 관계는 일시적이거나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간적이며, 사회적 공간의 다양한 양상들은 서로 맞물리고, 교차하는 방식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다. 이처럼 푸코의 “지식과 권력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공간성의 담론 위에서 이끌어졌다”(Tally 120).

「다른 공간들」에서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라는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을 제시한다. 그것은 “실제로 위치 지을 수 있지만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들”(24)로 일종의 반 공간(counter-sites)이다. 이것은 실제 장소에 “효과적으로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는”(24) 장소들이다. 그러나, 푸코는 이를 유토피아적 환상을 모색하는 길으로 데려가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기존의 유토피아(utopia) 담론에서 벗어나 헤테로토피아와 유토피아를 명확히 구분한다. 푸코에 따르면 유토피아란 “장소 없는 장소들”(24)이다. 그것은 완벽한 사회의 모습을 띠면서, 또한 완전히 사회에 반하지만 “근본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장소”(24)이다. 유토피아는 현실화 될 수 없는, 현실 어느 공간에도 자리매김할 수 없는 장소이며 실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토피아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Leeuwen 294)는 것이다. 그러나 유토피아와는 다르게 헤테로토피아는 나 자신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는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에 맞서서, 어떤 의미로는 그것들을 지우고,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들”(푸코, 『헤테로』 13), 일종의 반 공간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누구도 점유하거나, 누릴 수 없는 유토피아와는 다르게 헤테로토피아란 우리가 지도 위에 위치 지어볼 수 있는 유토피아, 실제로 현실화된 장소들이다.

헤테로토피아의 예시 중 하나로 푸코는 ‘목요일 오후 부모의 침대’를 제시한다. 이 목요일 오후의 침대는 오직 아이들에게만, 그리고 부모가 부재 하는 경

우에만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부모의 부재로 침대의 주인이 없어질 때 아이들은 본인의 일상에서, 즉 현실에서는 점유할 수 없었던 장소를 점유하게 된다. 커다란 침대에서 “아이들은 대양을 발견”(푸코, 『헤테로』 13)하고, 헤엄치며 뛰어오른다. 따라서 그것은 하늘이기도 하며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숲이기도 하다. 부모가 없는 집의 공간에서 침대는 아이들이 현실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된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상상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헤테로토피아는 “마침내 쾌락”(14)이다. 부모가 돌아와 이를 알게 되면 아이들은 혼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녀들』에서 클레르와 솔랑주가 머무는 마담의 집 또한 헤테로토피아의 장소가 된다. 마담이 없는, 즉 마담이 부재한 집은 그녀가 나가고 나면 비로소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마담의 부재는 하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부재와 동일하다. 솔랑주와 클레르는 마담이 없을 때마다 그녀의 공간을 점유하며 연극 놀이를 시작한다. 연극 안에서 클레르는 마담이, 솔랑주는 하녀가 되고, 그 역할은 번갈아 가며 바뀐다. 하녀 클레르 역을 맡은 솔랑주가 “마담, 모든 보석을요?”(Genet 36)라고 물으며 보석을 꺼내오면 마담 역 클레르는 “그것들을 꺼내면 내가 고르겠다”(36) 라고 으스스대며 말한다. 마담이 되고 싶어 하는 클레르에게 유토피아란 마담이 되어 자신과 같은 하녀를 부리는 곳이다. 혹은 “나는 슬픔에 잠긴 그분의 애인으로서 호송대를 따라가겠어”(44)라며 마담의 애인을 욕망해 보기도 하는 곳이다. 자신의 이름을 가진 하녀를 부르며 마담 행세를 할 수 있는 마담이 없는 집은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장소를 위치 지을 수 있는 유토피아, 즉 하녀들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이 장소는 그녀들에게 또한 쾌락을 제공한다. 부모에게 들키거나, 부모의 출입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담에게도 절대 이 헤테로토피아를 들키거나, 그녀의 출입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마담의 부재로 열리는 헤테로토피아에서 공간의 주인은 하녀들이 된다. 마담과 하녀의 위계질서는 없어지고 하녀와 하녀만이 남는다.

현실 공간에 “신화적이고 실체적인 이의제기를 수행하는 이 다른 공간들”(푸코, 『헤테로』 14), 즉 헤테로토피아는 크게 다섯 가지의 원리를 가진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와 그것을 수정하여 출간한 「다른 공간들」 둘 다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각 원고 속의 원리들은 내용과 분량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푸코가 두 텍스트 모두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이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첫째, 모든 사회는 자체적인 헤테로토피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척 다양해서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형식을 갖지는 않지만, 푸

코는 이를 크게 두 가지 주요 유형, 즉, 위기의 헤테로토피아(crisis heterotopia)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s of deviation)로 분류한다.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란 생물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것으로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집이나 출산 여성을 위한 오두막, 달거리에 들어간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집 등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헤테로토피아는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졌으며, 20세기 중반까지는 신혼여행 등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처녀성의 상실은 지리적인 좌표를 갖지 않는 기차나 호텔 등의 “어떤 곳도 아닌 곳”(23)에서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후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들이 사라지면서 일탈의 헤테로토피아가 이를 대체했다. 이는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이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형태를 띠는 것으로 요양소, 정신병원, 감옥, 양로원 등이 이에 속한다. 현대 사회는 무위, 즉 게으름을 일탈로 보고 노화 또한 일탈로 보고 있으므로 요양소 또한 일탈의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두 번째 원리는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사회가 이전에 구축되어 있던 헤테로토피아를 흡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묘지는 18세기까지 도시의 중심부에 있었으며 누구도 그것에 엄숙한 가치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덜 무신론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18세기 말부터 해골은 개별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19세기부터는 개별적으로 썩어갈 권리를 갖게 되었다. ‘질병’으로서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났고, 결국 묘지는 마을의 바깥으로 옮겨졌다. “각각의 가족은 저마다의 검은 설 공간”(Other 25)을 갖게 되었다.

헤테로토피아의 세 번째 원리에 따르면 그것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복수의 공간, 복수의 배치를 하나의 실제 장소에 겹쳐놓을 수 있다.”(Other, 25) 극장과 정원이 이에 대한 예시로 극장은 사각형의 무대 위에 온갖 낮은 장소들이 마구 나타나게 만든다. 또한 정원은 이러한 “모순적인 장소 배치를 취하는”(25) 가장 오래된 예로 정원의 모든 초목은 일종의 소유주로서 분배되어 있다. 이어지는 헤테로토피아의 네 번째 원리는 그것이 시간의 독특한 분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무한이 쌓여가는 시간의 영원성의 헤테로토피아와 한시적인 헤테로토피아로 나뉘게 되는데, 전자는 박물관과 도서관처럼 모든 시간, 모든 시대, 모든 형태와 모든 취향의 하나의 장소 안에 가두어 두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는 “마치 이 공간 자체는 확실히 시간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듯 모든 시간의 공간을 구축하려는”(푸코, 『헤테로』 20) 것으로 이는 완전히 근대적인 발상이다. 이에 반하여 한시적인 헤테로토피아는 축제의 양식을 띠며 극장, 시

장, 공터, 휴양촌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숙학교, 병영, 감옥 등과 같이 축제가 아닌 통과, 변형, 갱생의 노고와 관련된 헤테로토피아, 즉 통과의례를 위한 헤테로토피아 또한 존재한다.

다섯 번째 원리는 그것이 “고립과 침투를 둘 다 가능하게 하는 닫힘과 열림의 체계를 가정”(Other 26)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헤테로토피아에 언제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허가를 받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여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헤테로토피아들이 있다. 반면에, 외부 세계에 닫혀 있지 않고 언제나 열려 있는 헤테로토피아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그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당신을 계속해서 바깥에 위치시키는 장소로 순전한 배제를 숨기고 있다. 푸코는 이에 대한 예시로 남아메리카 브라질 농장에 존재했다는 방과 미국식 모텔 방을 들고 있다.

헤테로토피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러나, 그것이 다른 모든 공간에 대한 이의제기의 장소라는 것이다. 이 반 공간은 다른 모든 현실이 환상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사회가 무질서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이라고 보일 만큼 완벽하고 주도면밀하고 정돈된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냄으로써”(푸코, 『헤테로』 25) 나머지 공간에 대한 반 공간으로 기능한다. 푸코에 따르면 식민지는 전 지구적 수준의 헤테로토피아로 식민지 권력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장소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곳의 사람들을 통제한다. 극단적인 예시로 파라과이에 정착한 예수회 수도사들은 삶 전체가 완전히 규제되었으며, 토지와 가축 또한 모두의 것으로 선포되었다.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로 주민들의 시간까지 완전히 통제했다.

『하녀들』에 마담 없는 집으로 나타나는 헤테로토피아의 성격은 대체로 푸코가 제시한 세 번째 원리와 다섯 번째 원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먼저 헤테로토피아의 세 번째 원리는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실제의 한 장소에 겹쳐놓는 데 있다. 클레르와 솔랑주는 그들의 역할 놀이를 통해 본인들이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주인이라는 지위에 그들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역할극을 통해 무대 공간은 그들이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동시에 마담인 클레르와 하녀인 클레르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지만 마담이 없는 집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 놀이에는 하녀인 클레르 역을 맡는 솔랑주가 있다. 솔랑주 그 자체로 하녀 역할을 해도 되지만 그들은 엄격하게 호칭을 구분한다.

솔랑주: 우유배달부에 대해 인정하세요. 솔랑주는 말해요: 지옥에나 가세요!

클레르: [공포에 휩싸여서]: 클레르! 클레르야!

솔랑주: 응?

클레르: [속삭이며]: 클레르라구, 솔랑주 언니. 클레르.

솔랑주: 아! 맞아, 클레르, 클레르가 말해요: 지옥에나 가세요! 클레르가 여기 있어요, 어느때보다 더 반짝이면서 말해요. 빛나면서요! [그녀는 클레르의 뺨을 때린다]

Solange: Admit about the milkman. For Solange says: to hell with you!

Claire: [panic-stricken]: Claire! Claire!

Solange: Eh?

Claire: [in an murmur]: Claire, Solange, Claire.

Solange: Ah! Yes, Claire, Claire says: to hell with you! Claire is here, more dazzling than ever. Radiant! [She slaps Claire.]  
(Genet 44)

마담이 없는 집에서 비로소 하녀인 클레르와 마담인 클레르가 공존한다. 이 양립 불가능 한 것들의 겹침은 하녀들의 헤테로토피아에서 완성된다. 헤테로토피아 공간에서 클레르와 솔랑주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 안에서 마담이 된 클레르는 하녀인 자신을 직접 바라보며, 하녀라는 자신의 현실 속 상황에 이의를 제기한다. 따라서 ‘마담으로서의 본인’이 ‘하녀로서의 본인’을 바라보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클레르와 솔랑주는 호칭을 명확히 구분하려 하며 자신들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이렇듯 양립불가능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병치시키는 것은 솔랑주와 클레르가 살아가는 일상 공간이기도 한 주인의 집을 현실과 반대되는 반 공간, 즉 현실에 자리매김한 유토피아로 만들고 있다.

헤테로토피아의 다섯 번째 원리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와 관련된다. 푸코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는 늘 자유롭게 열리거나 닫히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그것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헤테로』, 푸코 22)를 가지고 있다.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가지는 헤테로토피아는 감옥의 경우처럼 강제로 들어가거나, 한 종교나 문화 특유의 관습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의례”나(22)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거친 후 들어간다. 이때 하녀들의 헤테로토피아는 마담이 나가면서 열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닫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마담이 부재할 때마다 행해지는 연극 놀이는 일종의 의례의 형식을 취한다.

솔랑주: [갑자기 자명종이 울린다. 두 명의 배우들은, 불안한 상태로, 함께 달려간다. 그들은 함께 모여 귀 기울인다.] 벌써?  
클레르: 서두르자! 마담이 돌아오겠어. [그녀는 드레스를 벗기 시작한다.] 도와줘. 이번은 이미 끝났어. 그리고 언니는 끝까지 가지 않았지.

Solange: [Suddenly an alarm clock goes off. Soange stops. The two actresses, in a state of agitation, run together. They huddle and listen.] Already?

Claire: Let's hurry! Madame'll be back. [She starts to unfasten her dress.] Help me. It's over already. And you didn't get to the end. (Genet 46)

마담이 밖으로 나감으로써 열렸던 헤테로토피아는 마담의 귀가를 올리는 자명종 소리에 닫히게 된다. 하녀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공간에 입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마담이 나갔을 때만 가능하며, 마담의 귀가를 알리는 종소리에 의해 닫힌다.

솔랑주와 클레르는 헤테로토피아에 들어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종의 의식처럼 역할극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하녀들의 연극은 브루주아-프롤레타리아 간의 관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제의적 행위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는 푸코가 다양한 헤테로토피아를 가진 사회를 필요로 한 것과는 연결된다. 매디스 레이우엔(Mathijs Leeuwen)에 따르면 다양한 헤테로토피아는 “그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차이를 단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권위주의와 억압에서 벗어나는 수단”(308)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녀들은 마담이 없는 마담의 공간에서, 마담의 물건을 가지고 마담이 되는 역할극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억압에 반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주인이 부재해야 열리는 하녀들의 헤테로토피아는 마담의 부재, 즉 그녀의

외출이 이를 여닫는 필수 요소로 작용하기에 수동적인 성격을 가진 저항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녀들은 마담의 없는 공간을 자신들의 역할 놀이의 필수 무대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마담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마담 그 자신의 집이지만 마담은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는 곳, 마담에게만 금지된 헤테로토피아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녀들은 공간을 점유하는 공간의 주인으로 변모한다. 집에는 주인인 상태의 하녀가 존재할 수도, 주인의 출입이 금지된 공간도 있을 수 없다. 하녀들의 역할 놀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 이질적인 반공간은 그러므로 마담의 집의 위계질서와 권력관계를 무너뜨리고 전치시키는 해체의 공간이다.

### III. 거울의 헤테로토피아와 하녀들의 역할극

푸코에게 있어 유토피아란 실재하지 않는, 사회의 이상향을 담은, 그리하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장소이지만 헤테로토피아는 이와는 달리 현실에 위치지을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들, 또 “그것이 말하고 반영하는 온갖 배치들과는 절대적으로”(Others 24)다른 헤테로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에는 거울이라는 중간의 경험이 있음을 가정한다. 그에 따르면 “거울은 스스로에게 나 자신의 가시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그림자”(24)이며, “내가 부재하는 곳에서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24) 요컨대, 거울은 “장소 없는 장소”(24)로서 유토피아이다. 거울 속에서 나는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 비춰진 “내가 없는 곳의 나 자신”(24)을 본다. 거울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가 부재한 공간에 떠오른 나라는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거울 그 자체는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거울은 헤테로토피아이다.

거울은 이러한 측면에서 헤테로토피아로 기능한다: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거울 속에서 바라볼 때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실적인 장소로 만드는 동시에, 그것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상의 지점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장소로 만든다.

The mirror function as a heterotopia in this respect: it makes this place that I occupy at the moment when I look at myself in the glass at once absolutely real, connected with all the space that surrounds it, and absolutely unreal, since in order to be perceived it has to pass through this virtual point which is over time. (*Other* 24)

거울을 봄으로써 내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간은 현실적인 동시에 가상의, 그리고 비현실적인 공간이 된다. 거울은 실재하는 현실과 실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연결해주는 헤테로토피아적 성격을 갖는다.

마담이 없는 집에서 솔랑주와 클레르는 서로의 모습을 연기한다. 이는 마치 그들이 서로에게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과 같다. 하녀인 각자의 모습을 연기하는 그들은 내가 부재하는 곳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를 보게 한다. 클레르와 솔랑주 모두 역할극 내에서 본인 자신을 연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대신 한 명은 마담의 역할을, 한 명은 마담의 역할을 하는 상대방의 하녀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클레르가 마담이라면 솔랑주가 없고, 솔랑주가 마담이라면 클레르가 없는 연극 상황 밖에 연출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담 역할을 맡은 배우는 자신의 모습을 연기하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된다. 서로의 모습을 연기하는 자매는 마치 거울 속의 나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자아내는 것이다.

솔랑주; 여전히 거울을 보는구나. . . 클레르, . . . .

클레르: 날 혼자둬. 난 지쳤어.

솔랑주[엄격하게]: 망을 봐. 네 덕분에, 모든 곳이 다시 엉망이 됐어. 그리고 난 마담의 가운을 치워야만 해. [그녀는 그녀의 동생을 바라본다.] 흠, 너 대체 뭐가 문제야? 넌 이제 나처럼 해야만 해. 다시 너 자신으로 돌아와. 어서. 클레르, 다시 나의 여동생이 되렴.

Solange: Still looking at yourself. . . Claire, dear . . . .

Claire: Let me alone. I'm exhausted.

Solange [Sternly]: Watch at the window. Thanks to you, the whole place is in a mess again. And I've got to clean Madame's gown. [She stares at her sister.] Well,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can be like me now. Be yourself again. Come on, Claire, be my sister again. (Genet 48)

솔랑주가 없는 연극을 했던 솔랑주와는 다르게, 하녀인 클레르를 연기하는 솔랑주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봤던 클레르는 솔랑주처럼 빠르게 연극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나에 대한 가시성을 부여하는 거울이라는 장치는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게 한다. 푸코에 따르면 “거울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 그리고 내가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 그것이 일종의 재귀 효과를 지니는 한”(24) 그것은 헤테로토피아라 가정된다. 마담이 되어서 솔랑주가 연기하는 하녀 클레르를 보고 있는 마담 클레르는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절대적으로 현실적인 동시에 절대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으로”(24) 만든다. 절대 볼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 하녀들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서로를 비춰준다. 위치를 점유할 수 없는 ‘내가 아닌 나’와 자신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은 바로 헤테로토피아이다. 하녀는 마담이 되어 다른 하녀를 바라보고 그 다른 하녀는 마담이 된 하녀를 바라본다. 실제의 주인이 없는 하녀들만이 남은 공간에서 주인-노예의 이분법은 해체되고 무너진다.

#### IV. 유토피아적인 몸을 통한 저항과 한계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 이의제기의 장소인 헤테로토피아는 식민지, 감옥, 병영 등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이상향으로서의 유토피아는 아니다. 식민지는 “전 지구적 수준에서 공간의 조직화”(Others 27)라는 측면에서 식민지 지배국에는 헤테로토피아였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피식민지 국민에게는 엄청난 억압과 폭력으로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헤테로토피아라는 것은 오히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마구 뒤섞인, 각각의 권력 혹은 개별자들의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장소로 보인다. ‘이의제기의 공간’이라는 것이 항상 권력의 편이 아닌 약자의 편에 설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나’가 자신을 둘러싼 장소들에 맞선 반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를 점유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개인 간의 관계, 이들의 배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즉, 나라는 존재를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나의 몸, 즉 전적으로 나만이 점유할 수 있는 나의 신체라는 공간

을 활용해야 한다.

푸코는 「유토피아적인 몸」에서 “내 몸”이 가진 “고유한 환상성의 원천”(31)에 주목하며 그것 역시 “장소 없는 장소들을, 영혼, 무덤, 마법사의 주문보다 더 심오하고 고집스러운 장소들을”(31) 가진다고 말한다. 이것은 마치 헤테로토피아의 그것처럼 사회에 의해 구성되기도 하고, 양립 불가능한, 즉 나의 몸과 타자의 몸이 실제 한 장소에 겹쳐지기도 하며, 외부세계를 향해 열려 있으면서도 닫혀있는 “침투할 수 있지만 불투명하고, 열려 있으면서도 닫혀있는, 이해 불가능한 몸. 즉 유토피아적인 몸”(32)이 된다. 인간의 몸은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유토피아의 주연배우”(32)이다.

『하녀들』에서 푸코의 유토피아적인 몸의 개념은 마담의 애인은 므슈를 거짓을 고발한 클레르의 편지가 발각될 위기에 놓이면서 더욱 중요해진다. 클레르와 술랑주는 마담과 그의 애인을 때 놓을 심산으로 므슈를 절도로 고발하는 위조편지를 작성하고, 그를 투옥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므슈가 가석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안에 떨게 된다. 므슈가 전후 사정을 조사하면, 곧 그들의 범죄 행위가 발각될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발각되면, 그들은 마담의 하녀라는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해고된다는 것은 즉 하녀로서 누리던 마담이 없는 집의 헤테로토피아를 잃게 됨을 또한 의미한다.

추방의 위기에 놓인 하녀들은 아예 마담을 없애버려야겠다고 결심하고 차에 수면제를 타 그녀를 죽이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말실수 때문에 마담은 므슈의 가석방 소식을 알게 된다. 마담 살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담은 집에 왔던 짧은 찰나에 그들이 역할 놀이를 한 후 미처 치우지 못한 흔적의 수상한 모습을 포착한다. 마담은 하녀들이 므슈의 석방 소식을 제때 전해주지 않은 것에 놀라고 화장을 한 클레르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내 하녀들이 역할 놀이에서 시간을 확인하려 쓰던 알람 시계까지 발견하게 된 마담은 차를 원하는 클레르에게 “너 나를 너의 차와 꽃과 제안으로 죽이려 하는구나”(78)라고 말하며 황급히 므슈를 만나러 떠나 버린다. 마담은 하녀들의 수상한 모습을 포착했고 그녀의 출입을 금지하며 본인들이 자유롭게 점유할 수 있던 그들만의 헤테로토피아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사라짐이 예정된 헤테로토피아와의 마지막 밤에 대한 두 자매의 반응은 상반된다. 언니 술랑주는 그들의 마지막 역할극에서 마담 역 대신 하녀 역을 하기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마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붓는다.

솔랑주: 네? 오! 마담은 저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마담과 동등한걸요 나는 내 머리를 치켜들고 있어요 . . . 드레스요? 오, 마담은 그걸 가지세요. 나와 내 여동생은 우리 것을 갖고 있어요. . . . 이제, 저는 저 자신의 드레스가 있는걸요, 당신 것과 같아요. 저는 빨간 죄수복을 입었어요. . . . 저는 경찰을 따를거예요. 그들은 유일하게 날 이해해주는걸요. 그들 또한 추방자의 세계에 속해 있어요, 당신이 집계로만 만져보는 세상 말예요.

Solange: What? Oh! Madame needn't feel sorry for me. I'm Madame's equal and I hold my head high . . . The dresses? Oh, Madame could have kept them. My sister and I had our own. . . . Now, I have my own dress, and I'm your equal. I wear the red garb of criminals. . . . I'm obeying the police. They're the only ones who understand me. They too belong to the world of outcasts, the world you touch with tongs.  
(Genet, 92-94)

긴 독백에서 솔랑주는 자신의 죄가 발각될 것임을 인정하고 마담에게 당당히 맞선다. 그는 더 이상 하녀 클레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솔랑주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의 몸은 달리고, 행동하고, 살고, 욕망”(푸코, 「유토피아」 33)하는, 자신의 “온갖 의도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가로지르도록”(33) 내버려 두는 유토피아적 몸이 된다. 마담을 향한 범죄가 들키고 자신이 비로소 그것을 인정할 때, 솔랑주는 자기 자신과 마담을 주종관계에서 벗어나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주인-하녀라는 관계에서 벗어난 하녀가 있는 곳, 솔랑주가 세계 속에서 자리 지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녀의 신체는 유토피아적인 몸이다. “유토피아가 기원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헤테로토피아가 나타나는 것”(Roux 487), 그것이 바로 “체현된 헤테로토피아”(487)인 유토피아적 몸이다. 솔랑주는 그녀가 본래 속해 있던 마담의 집에서 자신을 분리시킨다. 주인에게 속하길 스스로 거부하고 벗어나는 하녀가 존재하는 공간은 현실 세계에 이의제기를 하는 공간이다. 마침내 마담의 집은, 마담이 있든 없든 솔랑주에게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주인과 하녀

라는 위계적 권력 질서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주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유토피아이기 위해서는 내가 몸이기만 하면 된다.”(33) 솔랑주는 주인과 하녀의 종속 관계를 본인이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자신의 몸이기를 선택한다.

끝까지 마담의 역할 놀이를 마무리하기로 선택한 클레르는 그러나, 솔랑주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는 마담이 없는 집이라는 마담이 열어주어야만 가능한, 마담의 외출과 귀가라는 과정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머무르기를 결정한다. 마담이 없는 집에서 마담처럼 치장하고 마담의 모습이 되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클레르 또한 마담과 하녀의 권력관계를 전치시키고 공간의 주인이 되어 헤테로토피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 또한 솔랑주와 같이 유토피안적인 몸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클레르는 솔랑주와의 역할 놀이로 만들어진 헤테로토피아에서 마담처럼 꾸미고, 말하고, 행동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세계와 연결된 유토피안적인 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작당모의가 들키는 것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이 헤테로토피아는 상실의 위기에 빠졌고 마담이 트슈와의 만남을 끝내고 나면 사라질 하룻밤의 환상에 불과한 시한부적인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클레르는 이제는 자신을 속박할 뿐인 마담의 집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 그녀는 여전히 환상을 좇으며 자신에 대한 가시성을 다시 스스로에게 돌려 본인을 재구성해볼 기회를 잡지 않는다. 결국 클레르는 죽음을 선택한다.

솔랑주의 독백을 모두 지켜본 그녀는 또다시 마담의 목소리를 하고 여전히 솔랑주를 클레르라 부르며 차를 가져오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마담 역의 클레르는 수면제를 탄 차를 먹고 삶을 포기한다. 유토피아적인 몸이 살고, 욕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기 전까지이다. 그러므로 마담 역의 클레르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유토피아적인 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담의 드레스를 입고, 마담의 차를 마셔 삶을 포기하는 클레르는 결국 헤테로토피아로 말미암은 환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매일 연습하던 마담 살해극은 결국 클레르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지만, 현실의 마담은 여전히 살아있다. 결론적으로 하녀는 죽고, 마담은 살았다.

푸코에 의하면 자유는 실천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의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은 이의제기의 공간이자 모든 장소에 대한 반 공간, 그리하여 권력이 스며든 모든 장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모두에게 해방을 보

장하지는 않는다. 푸코는 폴 래비나우와의 인터뷰에서 “기능상 근본적으로 해방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72)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어떠한 기획도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자유를 건네주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는 “행사되어야만”(73)한다. 『하녀들』에서 두 자매의 운명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 또한 이러한 실천적 자유에 기반한 차이이다. 솔랑주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점유하기로 결정하여 자유를 실천했지만, 클레르는 여전히 마담이라는 환상을 좇으며 본인의 몸을 본인이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극은 주네가 무대 위로 올린 두 명의 하녀들을 통해 각각 헤테로토피아라는 공간에서 기인한 저항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 V. 결론

푸코는 「다른 공간들」에서 현시대를 공간성의 시대라 천명한다. 공간의 시대는 병렬, 인접성, 동시성, 분산의 특징을 가지며 여러 지점이 교차되어 망을 형성하는 시대로 변모했고, 배치(emplacement)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때 중요성이 있게 되는 것은 공간이 가진 배치 관계이며 푸코는 배치를 규정하는 지점들, 요소들 사이의 ‘인접 관계’, 즉 배치 관계를 오늘날 공간의 에피스테메로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리 지움이라는 것은, 이러저러한 요소들의 관계들의 “축적, 순환, 측정, 분류 유형”(23)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극 무대는 이러한 공간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장소이다. 무대 위에는 이러저러한 장소들에서 이동하고, 행동하는 인물들이 펼쳐진다. “극장은 사각형의 무대 위에서 서로 무관한 일련의 장소를”(25)를 이어지게 만들며 어떠한 해석의 가능성을 심어준다. 『하녀들』의 마담의 집은 그리하여 저항과 복종의 공간이 마구 교차되는 장소이다. 마담의 입장과 등장으로 헤테로토피아가 열렸다가 닫히기를 반복하며, 하녀들의 역할 놀이 또한 이어진다. 무대는 이의제기의 장소가 되었다가, 다시 현실의 장소가 되었다가, 다시 이의제기의 장소가 되기를 반복하며 관객들에게 현실의 모습을 반영해 보여준다.

권력은, 푸코의 말을 빌리자면, 제도나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부여받는 특정한 힘”(Power 93)도 아니다. 한 사회가 갖는 권력의 모습은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부여하는 이름”(93)이다. 권력이란 “특정 집단, 계층, 개인에게 주어진 소유물”(Lamke 16)이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간이란 이러한 사회 속에서 “권력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 이해하는 특권적인 장소”(Tally 120)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공간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권력관계를 파악하고 읽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동시에 자유는 실천이라 단언하며 공간의 실천에서의 유토피아적 희망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내가 운영하고, 움직이는 나의 욕망 주체인 나의 몸 자체가 모든 장소의 반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몸이 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가정이다. 우리 자신의 신체를 통해 우리는 특정 공간을 차지하고, 이동하고, 점유하며 스스로가 공간이 됨으로써 유토피아적인 몸, 즉 체현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쥬네극은 연극이 일어나는 공간에 특히 더 중요성을 부과함으로써 신성한 제의적 성격을 얻는다. 그는 극을 통해 “명백하게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의 통과례를 발견하는 시도를 해왔다”(Lucas 295)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쥬네의 『하녀들』 속 역할 놀이를 통해 서로를 거울처럼 바라보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을 만들었던 하녀들의 몸이 어떻게 유토피아적인 몸의 특징을 가지고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공간을 통한 저항의 모습을 사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파팽 자매에게 안주인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던 실제 사건과는 달리 『하녀들』에서는 한 명의 하녀를 제외한 누구도 죽지 않는다. 대신 역할 놀이 속 마담의 모습을 한 클레르가 죽고, 다른 하녀 솔랑주가 살아남음으로써 주인과 하녀라는 이분법이 사라진다. 『하녀들』에서 소수자의 권력에 대한 명확한 저항의 방식을 관객들에게 제시하기보다는 두 자매의 상반된 운명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은 소수자의 저항이 어떻게 여러 가지 모습을 띌 수 있는지를 관객들에게 설득하는 쥬네의 극적 통과례의 과정이라 볼 수도 있겠다.

## 인용문헌

- 김숙현. 「라캉의 정신분석으로 본 장 주네의 <하녀들>」. 『한국연극학』. 41 (2010): 211-247.
- 김효. 「들뢰즈/가타리의 ‘되기’ 이론으로 살펴 본 장 주네의 <하녀들>」. 『한국연극학』 36 (2008): 227-62.
- 푸코, 미셸.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 \_\_\_\_\_.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토피아』. 11-26.
- \_\_\_\_\_. 「유토피아적인 몸」. 『헤테로토피아』. 27-39.
- \_\_\_\_\_. 「공간, 지식, 권력 — 폴 라비나우와의 인터뷰」. 『헤테로토피아』. 61-93
- Ali, Farah. "The Invisible Flesh: Mimesis in Jean Genet's *The Maids*."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46.4 (2023): 81-97.
- Eradam, Yusuf. "The theatre of the absurd and Jean Genet." *Tiyatro Araştırmaları Dergisi* 9.9 (1978): 16-23.
- Foucault, Michel.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1(1986): 22-7.
- \_\_\_\_\_.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 Colin Gordon. Pantheon Books, 1980.
- Genca, Papatya Alkan. "Violence Imagined, Violence Aestheticized: Psychology of Violence in Jean Genet's *The Maids*." *Confluente* (2015): 16-25.
- Genet, Jean. *The Maids and Deathwatch: Two Plays By Jean Genet*. Grove, 1954.
- Jones, David. "Building Genet's Bodies: Bodies and their Representation in the Works of Jean Genet"
- Kang, Yang-eun. "The Revolt of Theatre in Mid 20<sup>th</sup> Century From Jean Genet with The Maid and The Balcony." 『모드니 예술』. 12(2015): 1-15.
- Lamke, Thomas.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Taylor & Francis, 2011.
- Leeuwen, Mathijs, and Willemijn Verkoren. "Thinking Beyond the Liberal Peace: From Utopia to Heterotopias." *Acta Politica*. 47.3(2012):

292-316.

Lucas, Kevin. "A Parasociology: Jean Genet in the Age of Celebrity Worship." *Religion and the Arts*. 24.3(2020): 290-319

Madhuri, Samana. "A theatre of possibilities and contestations: Reading Jean Genet from the margins and his theatre as the site of deconstructing power in his plays *The Maids* and *The Balcony*." *An International Literary Journal (LLILJ)* 3.2 (2013): 1-13.

Roux, Dominique, and Russell Belk. "The Body as (Another) Place: Producing Embodied Heterotopias Through Tattoo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6.3(2019): 483-507.

Tally, Robert. *Spatiality*. Routledge, 2013.

White, Edmund. *Genet: A Biography*. Vintage, 1994.



## Abstract

## Dismantling Power Relations and Its Potential for Heterotopia in Jean Genet's *The Maids*

Kim Chaehyun

This paper explores the transformation of space into heterotopia in Jean Genet's play, *The Maids*. The study examines how subjugated individuals occupy and dismantle dominant power relations. Foucault recognizes heterotopias as real locations, contrasted to utopias that embody unattainable ideals. As sites existing outside conventional locations yet grounded in reality, heterotopias serve as counter-sites. These spaces can contain inconsistent elements and are open to inversion, juxtaposition, or challenge. Consequently, claiming space as heterotopia opens up powerful avenues for marginalized groups like the maids, allowing them to enter positions they would otherwise be excluded from.

In Genet's work, *The Maids*, he constructs a unique setting where two maids reside. The residence ostensibly belongs to their employer, Madame; however, in her absence, her maids dominate the spa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ids, seizing the opportunity of their mistress's absence, transform her household into a heterotopia through role-playing. This act challenges the traditional master-servant territorial dynamics. Such contestation ultimately subverts the established hierarchy, undermining the power dynamics between Madame and her servants. By occupying their mistress's space, the maids create a heterotopia that allows them to vicariously access Madame's position, which results in a fundamental shift in the order of supremacy. The heterotopia blurs the lines of the master-servant divides,

allowing the maids a chance to liberate themselves from the fetters of their oppressed social statuses. This paper thoroughly analyzes the method in which the maids transform their environment into a heterotopia and explores the potential for resistance, as well as its limitations, within the constructs of Foucault's interpretation of heterotopia and the utopian body.

**Key Words**

heterotopia, space, dismantling power relations, resistance, utopian body

## 『단힌 방(*No Exit*)』을 통해 본 인간 존재의 구성: 생과 지옥의 대비

이 지 아\*

### I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를 통해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대비되는 두 대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비(contrast)란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을 뜻한다. 두 가지 대상은 그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비교된다. 사르트르가 제시하는 두 대상도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비교가 명백히 되고 있다. 그러나 사르트르가 구현하는 두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통하여 완벽히 똑같은 두 세계를 그려낸 사르트르의 『단힌 방(*No Exit*)』을 통해 대비의 요소를 살펴보고 그 같음을 탐구하고자 한다.

사르트르가 자아와 의식에 접근하는 이론에 대해 커밍(Robert Denoon Cumming)은 그것이 비뚤어져 벗어나는 애매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함을 피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르트르의 접근법은 커밍이 인용한 사르트르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서 달아나기 때문”(The Philosophy of Jean-Paul Sartre 13)이라고 하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한 것은 인간이 타인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사르트르의 말에는 대비되는 두 대상이 관계를 맺는 역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멀어짐이 가까워짐이라고 봄으로써 다른 것의 같음을 주장하는 사르트르의 관점이 들어 있다. 커밍이 분석하듯이, 사르트르는 “반성(reflection)이 경험을 벗어나거나 의식에 나타나는 것 이면에 자리하는 현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3)고 보면서

---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도 그 불가능한 회피를 이루고자 하는 접근을 계속한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불가능을 깨고자 시도하는 사르트르의 이론은 방법론적으로도 다른 것의 같음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에 드러난 상반되는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도 그것들의 같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르트르의 『단한 방』은 한 세계에 갇힌 인간을 그려내고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출구가 없는’ 것은 방에서 나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 방으로 오기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전 세계와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그곳은 죽은 이후의 사후세계다. 그렇게 사(death)는 생(life)과 대비된다. 사르트르가 회곡의 배경이자 장소를 사후세계로 설정함으로써 그곳은 죽기 이전의 세계인 생과 대비되고, 삶 속에서 그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충격적인 느낌과 더불어 더욱 인식을 강화하면서 대비를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것이 독자에게 충격적인 느낌을 주는 이유는 그곳이 지옥이기 때문이다. 단한 방이 무시무시한 이유는 그곳이 죽은 자이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가르생(Garcin), 이네스(Inez), 에스텔(Estelle)처럼 생에서 저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인간들이 들어오는 지옥이기 때문이다. 지옥은 생에서의 일들을 그곳에 온 이유로서 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은 지옥과 대비된다. 생에서 한 행동은 지옥과의 연결고리여서 대비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방이 ‘단한’으로써 이후에는 완전히 대비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 『단한 방』의 인간은 생과 사를 관통하여 존재하는 동일한 인간이지만, 완전히 대비되는 장소로 인해 대비되는 상황에 놓인다. 그렇다면 대비되는 곳에 각각 존재하는 인간은 다른 인간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그 둘은 같은 인간이다.

구체적으로 단한 방에 갇힌 인간은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단 하나의 시선에 떠는 인간이다. 단한 방에 들어온 인간은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함으로써 무한한 시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한 방에 함께 갇힌 것은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이라는 단 3명의 인간으로, 그중에서 시선을 의식하는 가르생은 이네스가 보내는 단 하나의 시선에 의해 고통받는다. 그렇다면 이것과 대비되는 것은 생에서의 인간으로, 그는 살아있을 때 죽음 직전까지라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무한한 개수의 시선으로 고통받는 인간이다. 인간은 생에서 자신이 만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무한한 수의 인간이 보내는 시선에 떠다. 이와 같이 대비되는 조건의 인간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르트르다. 사르트르가 제시하는 대비되는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르며, 동시에 얼마나 같은지를 『단한 방』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 II

대비되는 두 가지 것의 동일성은 『단힌 방』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다층적인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과도 같고, 등장인물은 생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곳에 놓임으로써 당연하게도 두 곳으로부터 대비되는 인간 또는 대비되는 속성을 가진 인간이 된다. 생과 지옥이라는 대비되는 배경은 생과 사라는 대비되는 시간성, 생에서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로써 대비되는 장소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시간과 장소라는 두 가지 개념은 ‘단힌 방’ 안에서 분화되어 나오지만 묘하게 맞물리며 서로를 구성하는 자체가 되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개념은 또한 미묘하게 맞물리며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된다. 그것을 사르트르가 존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단힌 방』은 그러한 사르트르의 이론이 펼쳐지고 집약되어 있는 시간이자 장소가 된다.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Being and Nothingness)』에서 인간 존재를 파악하는 데 시간성을 탐구하는 것은 『단힌 방』에서 생과 사가 시간성을 소환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 그리고 생과 사에 존재하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식은 『존재와 무』에서 부정과 긍정이 오가며 시간성을 분석하는 사르트르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 사르트르는 부정을 통해 긍정을 주장하고, 긍정 안에 부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다양한 개념 속에서 설명한다. 또한 부정과 긍정이 다르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반대되는 서로의 개념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르트르 이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르트르는 “나의 모든 가능성이 세계의 지평에 나타나서 세계를 나의 세계로 만드는 것은 ‘시간 속에서’”(『존재와 무』 201)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 존재를 파악하는 데 시간성을 도입하고, 시간적인 것의 의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그런데 시간성을 연구하는 데서도 긍정과 부정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며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3요소에서 각각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경우 무(無)로 소멸되어 버리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다. 사르트르는 시간성에 이르기 위해 과거·현재·미래를 독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시간적인 전체의 배경에서 생각할 것을 주장하며, 하나의 전체로서 시간성을 다루고자 한다. 독립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결코 독립해 있지 않은 시간이 존재하는 ‘단힌 방’의 시간성은 이와 같은 사르트르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와 무』에서 사르트르가 기술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각 각 분리된 것으로 탐구되고 있지만, 서로를 부정할 수 없는 중첩된 것으로 설명된다. 서로를 구분하는 근거는 서로의 단절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로 존재하고, 대비되는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사르트르의 관점과 만난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사르트르가 하는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 내가 나의 과거로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과거로 ‘있  
는’ 한에서이다. 내가 나의 과거로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의 유일하게  
가능한 근거는 바로 내가 나의 과거로 있어야 하는 그 필연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마다 나는 나의 과거로 있지 않을 것이다. (219)

이와 같이 부정은 긍정을 요구하고, 부정은 긍정과 같은 것이 된다. 과거에 대한 부정은 과거에 대한 긍정을 내포한다. 사르트르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있지 않은 것은 내가 변해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성을 전제로 내가 연결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르트르에게 시간성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긍정과 부정은 필연적으로 서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함께 존재한다. 사르트르가 이를 비유한 행복에 관해 말하면서 “내가 행복했던 것은, 또는 내가 행복한 적이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219)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긍정과 부정은 서로를 전제하며 같이 존재한다. ‘있다’는 긍정과 ‘있지 않다’는 부정은 필연적으로 서로 때문에 존재한다. 과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내가 과거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해서 그러한 것이므로 과거는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것에 관해 긍정이 부정의 부정이고, 부정이 긍정의 부정이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두 가지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의식이 과거의 의식이 되고” 그리하여 그것이 “시간성의 전체를 형성”(이창석 391)하는 것과 같다. 이는 시간성의 3요소인 과거·현재·미래를 완전히 구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관점과도 일관되는 것이며, 비독립을 전제로 전체의 배경에서 존재를 들여다 보고자 하는 사르트르의 논리를 관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이 현재 내가 완전히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과 반대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은 아니다. 행복했던 것은 과거에 있어서만 행

복하다는 말인 것이다. 따라서 과거는 영원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의미를 현전시키는 것이다. 행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와 대비되는 개념과 같은 ‘수치’로도 사르트르는 과거를 설명한다. 과거에 느꼈던 것으로서의 수치는 그것을 느꼈을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것으로 설명되고, 현재에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독립되지 않는 시간성을 설명해 주는 가장 적절한 개념이 된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수치는 과거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존재를 현전시켜 주기 때문에 과거는 “고뇌”(222)와도 같다.

사르트르는 가지고 있었던 과거를 고뇌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단한 방』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모든 등장인물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단한 방’으로 왔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과거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 생에서 지은 죄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와 현재가 결코 분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세 명의 등장인물은 과거에 지은 죄를 서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을 수 없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적 관계에 놓이고, 실제로 각자가 지닌 과거의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다. 과거의 일을 타인이 알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자체로 형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관한 사실로 인해 타인으로 부터 평가를 받는 것도 과거와 분리할 수 없는 현재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르생은 자신의 과거로 인해 병적으로 고뇌하는 인물이다. 가르생은 자신이 생에서 저지른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자신이 과거에 한 일 때문에 지금 ‘단한 방’에 존재하는 가르생은 전체로서의 시간에 존재하는 인간과도 같다.

가르생이 과거에 있었던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받는 평가가 자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르트르의 ‘수치’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과거에 박제된 수치는 변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생을 괴롭힌다. 그렇지만 수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의 가르생에 끊임없이 침투하여 괴로워하는 현재의 가르생을 구성한다. 그렇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수치로 괴로워할 운명을 정해 받은 가르생이 들어 온 단한 방은 영원히 고통받을 장소를 상징한다. 이와 같이 단한 방의 시간은 과거와 분리되지 않은 현재를 지남으로써 사르트르의 전체로서의 시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끊임없이 살아가며 침투하는 의식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가르생의 모습은 단한 방에서의 날들을 생의 종료로서의 지옥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로 보게 한다.

생과 지옥이라는 구분되면서도 연결되는 시간은 시간의 전체를 볼 것을 요구

한 사르트르의 이론에 부합한다. 그러나 지옥에서도 멈추지 않는 시간은 완료되지 않을 인간의 삶, 인간화의 미완료를 구성한다. 시간화의 전체 자체가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벗어나는 전체”(『존재와 무』 269)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은 지옥에서도 과거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벗어난 평가에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가르생과도 같다. 가르생 자체가 “자기의 뒤를 추적하는 동시에 자기를 거부하는 이런 전체”(269)와도 같은 것이다. 사르트르가 시간화의 전체가 “자기 자신의 뛰어넘기이며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뛰어넘기”(269)라고 말하듯이 이러한 시간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시간 속에 사는 자신을 시간화하는 인간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 행동과 의식에서 대비되는 것들이 동시에 살아 있고 긍정과 부정이 서로를 긍정하는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사르트르의 ‘존재’는 『닫힌 방』에 그대로 드러나며 인간을 탐구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닫힌 방』이 구성하고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사르트르가 제시하는 닫힌 방은 지옥의 개념을 구성한다. 여기서 지옥이란 죽은 자들이라는 인간에 주어진 환경적 조건이다. 이 지옥이라는 환경은 죽은 이후이긴 하지만 해당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배경이자 그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인간이 일순간도 빠지 않고 마시는 공기와도 같이 그를 둘러싸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부의 몸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며 그를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이기도 하다. 닫힌 방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그것이 지옥을 구성한다.

지옥이라는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면, 지옥이라는 개념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연결된다. 그것이 인간은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낳고, 그곳은 장소지만 인간의 정신적 특성과 강하게 결부된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대한 탐구는 물리적 특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행동과 인식을 낳는 정신과 필히 결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간다.

이와 같이 사르트르는 『닫힌 방』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또는 고뇌에 조심스럽고도 서늘하게 다가간다. 사르트르가 가르생에게 닫힌 방을, 독자에게 해당 장소를 제시하는 방식은 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접근하는 방식



과 같다. 사르트르는 작품의 첫 장면에서부터 독자를 해당 장소에 처음 들어가는 가르생과 함께 들어서게 한다. 그럼으로써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게 안개와도 같이 뿌연 전망처럼 배경을 제시한다. 어디인지 모르는 막연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정해진 대로 급사(Valet)가 일방적으로 가르생에게 단한 방을 제시하는 방식은 인간이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 일방적으로 놓였음을 알려주는 방식처럼 보인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막연하고 접근하기 힘들지만 가르생을 단한 방에 놓아버린 것처럼 독자를 그곳에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이 지옥이라는 나중에 알려지는 사실은 충격과 함께 서늘한 느낌을 주고, 그것은 인간이 자신이 있는 곳에 대해 느끼는 느낌과 다르지 않다.

사르트르가 제시하는 지옥은 지옥의 전형과 다르다. 특히, 단테(Dante Alighieri)의 『신곡(The Divine Comedy)』에 의해 전형화된 지옥의 형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르다. 『신곡』의 지옥 편에서 형상화된 지옥 역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문 꼭대기에서부터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26)야 하는 곳으로 적혀 있지만, 일반적인 것과 같아 보이는 『단한 방』의 방과 달리 『신곡』의 지옥으로 들어서는 문 주위는 “울음과 고통의 비명들이” 울려 퍼지는 “아수라장”(27)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한 슬픔”(26)으로 향하는 길이다. 『단한 방』은 가르생이 방으로 아무런 지장 없이 들어서는 장면으로부터 극이 시작하지만, 『신곡』에서 지옥의 문 앞에 선 “나”는 들어서기를 결심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27)고 만다. 『신곡』에 묘사된 지옥은 어둠 속에서 비명과 울부짖음이 울려 퍼지는 동굴, 극심한 악취를 내뿜는 진창길, 끝없이 깊은 절벽 아래의 절벽과 늪 등이며, 지옥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은 끝없는 고통의 비명을 내지르는 인간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안은 채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는 인간들, 알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인간들 등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희망이 없고, “잠들지 않는”(111)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고통에 더하여 그러한 사실로부터의 고통에 괴로워 극렬하게 몸부림친다.

그러나 『단한 방』의 지옥은 방이다. 그저 단 하나의 일반적인 방에 불과하다. 그곳에는 극심한 악취와 진창도 없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비명 소리도 없다. 그래서 방에 들어선 가르생도 “쇠꼬챙이들은 어디 있어요?”<sup>1)</sup>(13)라고 집사에게 묻는데, 그곳이 자신이 “예상했던 바와는”(12) 달리 전형적인 지옥의 모습이 아닌

1) 『단한 방(No Exit)』의 인용은 번역본의 쪽수를 기재한다.

곳이기 때문이다. 급사에 의해 “제2제정풍의 거실”로 언급되는 그 방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초인종이 있고 안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 있는 방이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문을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는 문이라고 한 것처럼 『단힌 방』의 지옥도 영원과 고통이 연결되는 곳이다. 가르생은 지옥이 불러오는 연상을 “단힌 방”에서 찾는 것에 실패하지만 곧바로 고통을 영원과 연결해 낸다.

가르생: [...] 잠깐만, 그런데 그게 왜 고통스럽지? 왜 그게 꼭 고통스럽다는 거지? 알겠다, 그러니까 단절 없는 생활이라는 거군요.  
(15)

GARCIN: [...] Why, now, should it be disagreeable? . . . Ah, I see; It's life without a break.

가르생은 급사에게 질문하며 자신이 그 방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 하면서 “그러니까 뜬눈으로 살아가라... ..”고 읊조리며, “뜬눈으로. 영원히. 내 눈 속은 항상 대낮이겠군. 내 머릿속도”(17)라고 앞일을 예상한다. 가르생이 알아차린 지옥의 속성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쉽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간이 끝나지 않는 영원성이라는 것은 『신곡』과 『단힌 방』이 구성하는 지옥의 공통적인 속성이다.

그러나 『신곡』과 『단힌 방』의 지옥이 다른 점은 고통에 있다. 『신곡』에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악취, 진창, 절벽과 높이라는 장소, 짐, 욕과 폭력 등의 외부적 고통이다. 피할 수 없는 후각이 주는 고통, 진창과 같이 멀쩡하지 않은 길, 공포로 압도하는 절벽과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높이라는 장소가 몸과 마음을 엮어매는 곳,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하는 육체적 고통, 남으로부터 듣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욕과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그것은 자신도 피할 수 없이 남에게 가해야 하는 폭력이며, 끝없이 서로를 때리고 맞아야 하는 상황 자체도 고통인 것이다. 『신곡』의 지옥에서의 고통은 고통이 몸의 감각과 몸 자체를 지배하고 그러한 물리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이 따라서 고통받는 구조다. 몸을 온전케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몸에 폭력을 가하는 『신곡』의 지옥은 일차적으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몸의 감각이 끔찍한 공포에

압도되어 편안을 느낄 수 없어서 정신이 지배를 받고, 몸에서 전해지는 고통의 아우성이 쉼 없이 계속되어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고통받는 곳이다. 그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신의 고통을 심하게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압도적인 외부적 고통이 존재하고, 육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고통의 정도가 삶에서의 것과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이 앞선다.

『단힌 방』의 지옥에는 외부적 고통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방에는 고통을 주거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악취나 소음도 없고, 적절한 공기, 빛이 존재한다. 가르생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쇠꼬챙이, 석쇠, 가죽 깔때기”(13)가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육체에 고통을 가할 고문도구들도 존재하지 않고, 가르생에 이어 방에 들어온 이네스가 찾는 “사형집행인”(the torturer)(21)도 없어서 사형이나 고문을 당할 일도 없다. 이네스가 “부채를 통한 고문?”(Torture by separation)(21)이냐고 묻는 것처럼 이 방에는 위협적인 대상이 없고 오히려 그것들과의 분리만이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지옥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 『신곡』의 지옥에서 “사랑으로 삶을 버린 망령들”(53)로 지목되는 영혼들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인간들이 『단힌 방』에 똑같이 존재한다. 『단힌 방』에 등장하는 세 인물 중 세 명이 모두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곡』의 지옥에서 “애욕의 못된 기질”(53)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인간상은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 모두에 대한 설명과도 같다. “집 안에 혼혈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있었”(48)던 것이 “아내를 고문했다”(47)고 털어놓으며 도의에 어긋난 음란한 행위로 “아내를 시궁창에서”(48) 살게 한 가르생과 사촌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내를 자신과의 동성애에 빠지게 해 애인의 남편을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들고 이후 애인이 계획한 자살에 동반하여 죽은 이네스, 결혼 후 외도 관계로 사랑에 빠져 애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에스텔은 모두 “애욕”에 빠져 생을 살았던 인물들이다. 『신곡』에서 “사랑 때문에 자살했으며”(53), “음란한”(53) 것으로 비난받는 인물들이 『단힌 방』의 인간들과 다르지 않다. 거기에 더하여 “아무것도 후회하진 않는다”(47)고 말하며 자신의 아내를 일컬어 “그녀는 순교자의 소명을 타고난 여자”(47)라고 죄책감 없이 말을 내뱉는 가르생과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49)라고 말하는 이네스의 태도는 정확히 동일하고, 생에서의 삶을 털어놓을 때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34)라고 묻는 에스텔과 “당신은 자기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나요?”(34)라고 묻는 가르생의 사고방식은 정확히 일치한다. 가르생에게 “누가 그걸로 당신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34)라고 말함으로써 가르생뿐만 아

나라 자신도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에스텔이나 “어디에 잘못이 있느냐고요?”(34)라고 절규하듯 말하는 가르생은 모두 스스로가 잘못으로 알고 있는 삶에서의 행위를 자신과 타인에게 정당화하려는 인물들이다. 『단힌 방』의 인간들의 모습은 『신곡』에서 “자기와 관계된 셀 수 없는 추문들을 덮으려고 음란을 정당화하는 묘한 법을 만들었다”(53)고 묘사하는 인물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신곡』이 겨누고 있는 비난의 화살이 가르생과 이네스, 에스텔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신곡』의 지옥과 『단힌 방』의 인간들은 동일한 유형의 인간 형태와 삶의 행보를 보여준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문은 없어요”(36)라는 이네스의 말은 『신곡』과는 전혀 다른 『단힌 방』의 지옥을 구성한다. 이네스가 말하고 그것으로써 가르생과 에스텔이 깨닫는 바로서 “바로 우리들 각자가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사형집행인”(36)이라는 사실이 존재할 뿐, 단힌 방에는 어떠한 육체적인 고문도 자행되지 않는다. 반면, 『신곡』의 지옥은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과 다를 바 없는 “사랑으로 삶을 버린 망령들”이 존재하는 곳이지만 그들이 육체적인 고문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곳이다. 인물들이 말하지 않으면 정적이 감도는 단힌 방과 다르게 『신곡』의 지옥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49) 속에서 “태풍이 영혼들을 휘둘러 회초리로 몰아세우며 괴롭히는”(51) 곳이다. “육망의 땅에”(51)에 썩인 것으로 일컬어지는 『신곡』의 영혼들은 울부짖는 폭풍우에 의해 벼랑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쉴 새 없이 내몰리며 “검은 바람의 도리깨질로 벌을 받는”(51)다. 『신곡』의 지옥을 채우는 것은 “비명과 한탄, 통곡”(51)이다.

지옥이라는 개념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면, 『신곡』의 지옥에서 ‘영원히’는 주목받지 못한다. ‘고통’이 더 주목받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정신까지, 몸과 정신을 압도하는 형언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곡』의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곳은 지옥에 있는 인간의 몸과 그것을 바라보는 ‘나’, 즉 독자의 정신이 고통을 수용하게 하고, 고통에 대한 민감도를 극도로 치솟게 만든다. 육체에 가하는 고통이 “휴식을 향한, 번민을 덜어 줄 털끝만큼의 희망도 없이”(51) 계속됨으로써 그러하다. 고통에 대한 인식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테의 지옥은 ‘영원히’가 ‘고통’ 뒤로 숨어버리는 장소다. 그러나 『단힌 방』의 지옥은 외형적 고통이 없는 장소기 때문에 ‘영원히’에 더 무게가 간다. 사르트르의 지옥은 ‘영원히’가 더 고통스러운 곳이다. 가르생이 읊조리는 “뜯눈으로, 영원히”(17)는 인간의 신체에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대상이 없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다시 중요하게 소환될 수 있다.

영원에 대한 인식이 시간에 대한 민감도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지옥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생이 파악하려 노력하고, 독자가 생각해 보는 그 지점에 사르트르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던진다.

#### IV

영원이라는 시간성은 그 안에 놓인 인간이라는 존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영원한 시간은 자유다. 실존주의자들(Existentialists)이 “각 개인은 존재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Zuraikat 119)고 보는 데서 나아가 영원한 시간은 영원한 자유를 뜻한다. 인간이 행동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선택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을 살 때 영원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선택 사항들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것은 바뀔 말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생에는 선택의 압박이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은 고통을 받는다. 한정된 시간을 지닌 생의 순간에 인간은 최적의 선택을 하나만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그러한 고통 속에 사는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러나 생과 반대되는 사의 시간은 영원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속에서 무한한 종류의 것을 할 수 있다. 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순간에 반드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벗어나 있고, 단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개념에서도 벗어난다.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므로 한 가지를 선택한 이후 다른 것을 다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옥에서는 이것과 저것을 다 할 수 있으며 하나만 선택하든 모두를 선택하든 그 사실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생에서와 다른 자유를 누린다.

이와 같이 생과 지옥의 시간성의 개념은 반대이며, 영원성이 가져오는 자유의 개념도 반대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사르트르는 생과 지옥이 결국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옥에서 인간은 무한한 종류의 것을 할 수 있지만 과거의 것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스스로를 선택함으로써 ... ‘인간’을 선택한다”(『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21)고 말하는데 선택이야말로 인간이 되게 하는 동시에 인간이 인간이기를 선택하는 자발적인 고통의 근거다. 선택이 인간 존재를 꿰뚫어 보게 하는 단서로 작용하는 것을 사르트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르트르가 “자유와 책임의 연관성을 강조”(Zuraikat 119)하듯이 책임이 따르는 자유는 고통을 낳고 과거도 고통으로 존재한다. 『닫힌 방』에서도 생은 지옥의 과거에 존재하고, 생이라는 과거에 한 선택과 그 결

과를 인간은 고칠 수 없다. 생에서의 가르생은 비밀스럽게 반전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감옥에 간 후에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총살을 당한 인물이다. 지옥에서 그는 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에 대해 말하는 신문사 동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아! 단 하루만이라도 그들 사이로 돌아간다면... .. 멋지게 반박할 수 있을 텐데!”(72)라고 한탄한다. 그가 집착하는 것은 과거의 그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생에서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들이다. “내가 비겁한 놈이라고 떠드는 자들이 수천이야”(72)라고 외치며, 과거를 고칠 수 없는 지옥에서 비겁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은 간절한 열망을 발산하는 것이다. 지옥에서 인간의 자유는 없다.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과거에 한 행동을 고치는 것, 그것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해명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제한된 상황은 인간을 속박한다.

사르트르가 그려내는 가르생이라는 인물 속에서 인간은 타인의 평가로 고통 받는다. 결국 타인이 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차단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타인의 개념이 부상한다. 가르생은 “난 증언하고 싶었던 말이야, 나는, 증언을!”(68)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것을 생의 인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저 친구 말 한번 잘하는군. 비난도 적절하게 하고”(68)라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손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에 발을 구르듯 답답해한다. 지옥 속에 같이 놓인 에스텔에게 자신이 비겁한 사람인지 묻고, 에스텔이 “글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 , 당신이 결정하는 거죠”(69)라고 대답할 때, “나는 결정 못 해”(69)라고 자신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장면에서 타인의 존재가 부상한다.

외부적 고통의 장치가 전혀 없는 닫힌 방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 타인이다. 닫힌 방에는 가르생과 그에 뒤이어 들어온 이네스, 에스텔이라는 단 3명의 인간이 존재한다. 가르생에게는 이네스와 에스텔이라는 2명의 타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가르생이 “에스텔, 내가 비겁한 놈인가?”(69)하고 물으면서 에스텔에 의지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에 의지하는 인간의 속성을 드러낸다. 가르생은 자신이 정당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진짜 이유일까?”(69)라고 의심하고, 에스텔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도 궁급해한다. 스스로 만들어 낸 이유를 믿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의존한다. 에스텔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70)라고 말하는 데도 가르생이 에스텔의 평가를 갈구하는 이유는, 이미 그가 생에서의 인간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르생은 비겁한 놈이다! 이게 바로 그들이 내린

결정이야. 그들, 내 친구들이 말이야. 반년이 지난 후엔 이런 말도 하겠지, “가르생같이 비겁한”이라고”(70)라고 말하며 가르생이 몸서리치는 이유는 자신이 받고 싶지 않은 평가를 처절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일하게 자신이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에스텔은 생에서의 가르생의 친구들만큼의 비중을 갖는다. 에스텔은 가르생이 지옥에서 함께 하는 타인이며, 자신이 받고 싶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타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가르생은 “에스텔, 너는 나를 꼭 믿어 줘야만 해”(67)라고 그에게 잔절히 매달리고, “하지만 수천이 대수야? 하나의 영혼이,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내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도망칠 수도 없었다고, 나는 용감하고 결백하다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 있게 말해 줄 수 있다면, 나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72)라며 절규한다.

인간은 타인을 평가하는 존재이면서, 타인에 의해 평가받는 존재다. 타인의 평가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그 힘은 자신이 믿는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강하다. 타인의 평가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또한 가르생이 에스텔에게 “나 좀 믿어 주겠어? 그럼 넌 내게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될 거야”(72)라고 외치는 데서 드러난다. 자신보다 더 소중해질 수 있는 존재는 자신을 규정한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존재라기보다 타인에 의해 그 존재가 결정되는 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은 나 이전에 앞서는 존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나라는 인간이 있기 이전에 타인이 존재하여 그가 나의 모든 존재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이전에 나라는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르생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르생이 생의 인간들의 평가에 괴로워하고, 지옥의 에스텔의 평가를 갈구하는 이유는 평가 이전에 가르생의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가르생은 생에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어 도망친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전 행위로서 나라는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의 행위가 먼저 일어나며, 그 이후 타인의 평가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존재하며, 그러한 자각은 타인의 평가를 인식하는 상태에서 일어난다. 인간의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평가,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선후 관계가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맞물려 일어나며 자신과 타인 사이를 탁구공처럼 오가며 형성된다. 상대가 빠져버리면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타인에 의해 서 있게 되고, 타인이 있는 이상 정신 없이 빠른 속도로 오가는 탁구공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인간은 멈추지 않는 탁구공처럼

럼 빠르게 날아오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나의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한 인식은 가르생을 과거의 되돌릴 수 없는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고치고 싶어 하며, 타인의 평가에 괴로워하여 몸부림치고, 자신이 원하는 유일하게 남은 평가를 갈구하면서 에스텔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지옥에서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지니고 있지만, 타인은 자유를 박탈하는 존재다. 타인의 평가 이전에 스스로의 인식이 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타인에게 자유를 빼앗기게 두는 것은 자신이다. 무한한 시간을 부여받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과 자신이 선택할 무수한 가능성을 지닌 셈이지만, 과거에 저질러 버린 행위를 고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타인이 마음대로 평가해 버린다는 사실에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인간이 타인의 평가를 인식하기 때문이며, 나와 함께 있는 타인의 존재는 그것으로써 이미 나의 자유를 박탈한다. 역설적으로 지옥에 타인이 존재함으로써 나의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생에서의 유한한 자유와 지옥에서의 무한한 자유는 이 지점에서 대비된다. 생에서 인간은 끝이 있는 유한한 시간을 부여받음으로써 짧은 시간에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하는 제한된 선택권을 갖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한한 시간에서 비롯된 차단된 자유가 생에서의 인간의 조건이다. 반면, 『단한 방』의 지옥에서의 시간은 무한함으로써 인간은 한정 없이 무한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시간성의 측면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조건이 존재한다. 그러나 생과 지옥의 인간이 똑같이 고통스러운 것은 『단한 방』이 부상시키는 타인의 존재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지옥을 단한 방으로 설정함으로써 타인의 존재는 부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르트르의 지옥은 생과 다를 바가 없다. 생에서 인간이 많은 수의 타인을 만나고 살아가는 세상을 방 하나에 그대로 축약시켜 놓은 것과 같다. 생에서 인간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타인과 접촉할 수 있지만 만날 수 있는 타인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한정된 타인이라는 개념은 단한 방 안의 한정된 사람이라는 형상으로 집약되어 있다. 생에서의 타인들과 지옥의 타인들은 다르지 않다. 한 인간에 대한 다른 2명의 타인이라는 조건은 세상을 축약시켜 놓은 방 안에 ‘타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각해 줄 뿐이다. 생에서의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타인들을 방 안의 2명의 인간으로 형상화한 것, 그것으로써 타인의 개념은 동일하게 부상한다.

이와 같은 분석으로 볼 때, 사르트르에게 인간은 이미 있는 존재고, 타인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존재와 무』에서 사르트르는 “존재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도 존재는 이미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또는 적어도 존재를 이미 없는 것으로서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이다. 그것은 바로 의식이 시간적이기 때문”(42)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생과 지옥에서의 시간성이 유한과 무한으로 대비됨에도 인간과 타인의 존재만이 부각될 뿐 무한한 시간이 인간의 고통을 줄여주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닫힌 방』은 의식 이전에 인간이 존재함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이 대비되는 사실을 통해 볼 때도 생과 지옥의 조건은 동일해 보이지만, 사르트르가 파악하는 전체로서의 시간성을 통해 인간을 볼 때도 타인의 존재는 시간과 의식과 맞물려 동일하게 존재한다. 과거 때문에 존재하는 인간, 그것과 같은 말이나 다름없는 타인 때문에 존재하는 인간, 타인이 나를 구성하게 하는 인간의 의식이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르트르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은 “... 존재는 그 자기 자체라는 뜻이다. 자기를 구성하는 끊임없는 반성이 동일성 속으로 녹아 들어갈 때는, 존재는 그 자기 자체”(41)라는 설명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가르생이 지옥에서도 자신에 대한 평가와 그것으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의식, 책임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될 기회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구성하는 끊임없는 반성”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인간은 끊임없이 반성하는 데서 능동적이고, 동시에 타인에 의해 규정되고 그것이 “자기를 구성하”도록 하는 데서 수동적이기도 한 존재인 것이다.

사르트르는 존재의 탐구에 대해 논하기 위해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phenomenology)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동성’을 언급한 바 있다. 사르트르는 ‘인식’과 ‘사고’를 구별하면서 그 자체의 소산을 통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고’에 주목한다. 사고를 통해 인식에서 벗어난 하나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고가 존재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되는, 또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분석은 칸트(Immanuel Kant)의 관념론(idealism)을 벗어난다. 관념론에서 “존재는 인식으로서 측정되”는 것으로서 “‘인식되는 것’ 외의 존재는 없다”(29)는 이원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관념론을 벗어나는 사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사르트르를 후설의 현상학으로 이끌고, 그것으로써 ‘지각되는 것’(perceptum)의 존재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각되는’ 것의 존재가 의식의 다른 표현인 ‘지각하는 자’(percipere)의 존재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사르트르는 후설의 현상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사르트

르는 지각되는 것의 존재는 지각하는 자로 환원되지 않으며 두 존재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수동성’과 ‘상대성’의 개념이 등장한다.

사르트르는 ‘지각되는 것’은 수동적이라고 말하며, 상대성과 수동성을 존재의 특징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내가 그 기원이 아닌—다시 말해 내가 그 근거도 아니고 그 창조자도 아닌—하나의 변양을 받을 때 나는 수동적이다. 그리하여 나의 존재는 내가 그 원천이 아닌 그런 존재방식을 참고 견디어 내고 있다. 다만, 견디어 내기 위해서는 또한 나는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이 사실에서 나의 존재는 항상 수동성의 저쪽에 자리잡는다. 예를 들어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 단호하게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녀 나가는 하나의 태도이고,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하나의 태도이다. 만일 내가 언제까지나 ‘모욕받은 자’로 있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존재에 있어서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 스스로 존재를 나에게 할당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말하자면 내 쪽에서 나의 모욕을 되찾아 그것을 내 몸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있기를 그친다. 그것에서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이 나온다. 나는 나의 존재에 있어서 이미 수동적이지 아니며, 설령 처음에는 내가 나의 감정의 기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나의 감정의 근거가 되거나—그렇지 않으면 수동성이 나의 존재까지 파고들어 나의 존재는 남에게서 받아들인 존재가 되고, 그러므로 모든 것은 무(無)로 돌아가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30)

사르트르는 자신이 기원이 아닌 존재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존재의 특징적인 구조로 보고, 그것을 수동성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설명에서 ‘나’는 ‘인간’이나 마찬가지로, ‘나’를 ‘인간’으로 모두 바꿀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수동적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방식을 자신이 기원이 아닌 것으로 채우고 있으며, 자신이 아닌 것이 자신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기 어려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는 참기 어려운 자신의 존재방식을 견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이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닫힌 방』에 잘 그려져 있는 바와 같다. 자유가 주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을 구속하는 지옥이라는 공간, 무한한 시간의 자유가

있으면서도 수동적인 존재 방식으로 인해 구속받는 인간의 모습을 『단힌 방』이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르생이 생에서 함께 한 타인들이 내리고 있는 평가를 부당하게 느끼고 발버둥치는 것은 그것을 “모욕받은” 것으로 느끼는 것과 같다.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지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평가에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모욕받은 자’로 있어야” 하는 상황과 같다. 그 사실을 안고 지옥에 있어야 하는 가르생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존재를 ‘지각되는 것’으로 환원했을 경우에 한한 것이다. 가르생이 자신에 대한 모욕을 자신의 “존재까지 파고들게” 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서 받아들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에 그친다면, 가르생이라는 존재는 무(無)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르생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 자신의 존재를 파고드는 것을 격렬히 거부하고, 단힌 방에 있는 타인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갈구한다. 단 하루만이라도 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통스러워하고, 모욕과 반대되는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타인에게 매달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르생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수동적으로 자신이 기원이 아닌 것으로 구성되면서도 그러한 사실로 인해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자에 의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상대적인 존재임을 절절히 표현하는 인물이 된다.

사르트르가 “지각과 인식은 완전히 능동적이고 완전히 자발성”(31)이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의식은 아무 것에도 흡수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며 능동적인 것이다. 가르생이 수동적으로 자신을 구성하고 자신을 파고드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에 침잠되지 않고 오히려 발버둥치며 자신의 의식을 능동적으로 드러내듯이, 인간의 의식은 자신의 존재방식이 자신을 갉아먹게 두지 않는다. 가르생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처럼, 인간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고 그러한 자신의 의식까지 인식한다. 의식은 가만히 있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튀어나온다. 상대성과 수동성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데 충분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대성과 수동성이 “존재방식에 관련된 것일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존재 자체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33)이라는 사르트르의 말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사르트르는 존재한다는 것을 지각되는 것이라고 한 후설의 명제가와 같은 이유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현상학의 오류를 지적하는 사르트르의 존재에 대한 탐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면밀한 탐구와도 같다. 존재방식을 설명하는 상대성과 수동성

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개념과도 같고, 존재가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르트르의 부정은 완전히 능동적인 지각과 인식을 끊임없이 펼쳐 나가는 움직이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긍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는 데서 능동적이고, 동시에 타인에 의해 규정되고 그것이 자기를 구성하도록 하는 수동적이기도 한 존재인 것이다. 끊임없이 타구공을 오가게 하는 것처럼 능동적인 동시에 수동적인 존재, 타인에 의해서 있고 그것에 대한 의식으로 쉬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애에서와 다를 바 없이 닫힌 방에서도 인간은 고통스러워한다.

## V

타인이 나를 평가한다는 것은 나의 바깥에 타인이 존재하고, 그가 나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닫힌 방』에는 타인의 평가와 상대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관계로 얽혀 있는 가르생과 에스텔 외에 단 1명의 사람, 이네스와 이네스의 시선이 존재한다. 시선은 물리적인 시선과 정신적인 압박이라는 이중의 속성을 지닌다. 『닫힌 방』에서도 이네스는 직접적으로 타인을 바라봄으로써 물리적인 시선을 던지고, 그 시선으로써 타인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한다. 이중의 의미 모두에서 시선은 타인에게 고통을 가한다. 그리고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선을 의식하는 인간이 존재한다. 시선을 가하는 자의 시선이 대상 인물의 시선과 마주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시선을 의식하는 인간의 존재가 『닫힌 방』에는 잘 나타나 있다.

가르생이 들어와 있던 방에 이네스가 들어와서 인사를 나눈 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가르생을 보는 일이다. 이네스는 가르생을 쳐다보고 “당신 입”(22)이 문제라며 겁에 질린 그의 표정을 지적한다. 가르생에게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니니”(23) 얼굴을 마음대로 방치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인간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얼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타인의 시선을 알리는 것과 같다. 이네스는 에스텔에게 “... 내가 눈을 감아 버리고, 널 쳐다봐 주지 않는다면, 이 예쁜 얼굴로 대체 뭘 할 거지?”(42)라며 자신의 시선의 무게를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한다. 이네스는 타인이 시선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아는 인물로 보인다. 타인의 “시선은 자신을 구성하기도 하는”(Heim 130)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쉽 없이 널 봐줄 테니까. 너는 한 줄기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빛 조각처럼

내 시선 안에서 살게 될 거야”(63)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에스텔을 유혹한다. 이 네스의 말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동시에 에스텔을 자신의 “시선 안에서 살게” 함으로써 에스텔을 “반짝이는” 듯 살아 있게 해주려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시선은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임과 동시에 타인을 살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을 살아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비중 있는 것이 시선이라면, 그러한 시선의 힘은 그것이 타인을 괴롭게 할 수 있음이 확인될 때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에스텔과 가르생의 사랑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이네스는 그것을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들을 지켜보”(66)며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이네스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에스텔과 가르생이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하지만 잊지 마요, 내가 여기서 당신들을 보고 있다는 걸”(66)이라고 말하는 이네스로부터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지켜보는 시선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에스텔과 가르생의 행위는 이네스의 시선으로 인해 자유롭지 않은 것이 된다. 비록 자유로운 의사로 행하는 것일 지라도 시선의 존재는 두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되고, 속박 속에서 행해진 행위는 결코 자유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가르생은 에스텔과 사랑을 나누지만, 에스텔이 아니라 이네스와 결속된다. 이 네스는 끊임없이 가르생과 에스텔을 쳐다보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든다. 가르생에게 에스텔이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에스텔에게는 사랑을 표현한다. 두 여자에게 질린 가르생은 문을 열고 방을 나가려 하지만 문이 갑자기 열렸을 때 가르생이 나가지 않는 것은 이네스 때문이다. 가르생은 “안 갈 거요”(76)라며 에스텔에게 “그녀 때문에 내가 남는 거야”(77)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네스가 자신에게 시선을 던지며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는 타인이기 때문이다. 에스텔에게서 가르생은 자신을 평가하는 어떠한 말도 들을 수가 없고, 육체 이외의 것은 어떤 다른 것도 주고 받을 수가 없다. 반면, 이네스는 가르생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괴로움에 더하여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다. 가르생은 방에서 나가기 위해 문고리를 붙들고 흔들면서 “열어! 열라고! ... 죽쇄며, 집게며, 낚물이나 족집게, 주리를 틀어도 좋고, 태워도 좋고 찢어도 좋고, 난 아예 진짜 고통을 원한다고. 차라리 백번 뜯기고 채찍질에 황산 세례가 더 낫겠어, 이 머릿속 고통, 스쳐 지나고 쓰다듬으면서 결코 속 시원히 아프지도 않은 이 유령 같은 고통보다는 말이야”(76)하고 절규한다. 가르생은 생에서의 행동에 대한 자각 때문에 지옥에서 충분히 고통받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타인의 평가를

생에서도 지옥에서도 받고 싶은 열망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지만, 이네스는 가르생에 대해 “... 그는 도망쳤거든, ... . 그게 아직도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야”(68)라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는 가르생의 행동을 마치 생에서 직접 본 것처럼 알고 있고, 가르생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가르생이 스스로를 부끄러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도 고쳐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네스는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옥에서 유일하게 가르생을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그러써 이네스는 가르생에게 타인으로 부상한다.

가르생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머릿속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이므로 그 역시 끊임없이 의식이 쉬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고통도 자각하고 이네스가 자신에게 타인으로 존재함을 처절하게 느낀다. 그래서 가르생은 이네스의 존재에 대해 인정한다. 문이 갑자기 열린 이후에도 방을 나가지 않고 스스로 문을 닫으며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내가 설득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은 나하고 종자가 같거든”.(78) 가르생이 문을 닫는 이유는 이네스다.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닫는 것은 지옥을 그대로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생이 생인 이유와 같다. 가르생에게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이네스라는 타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이 괴로운 이유가 타인이 존재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생이 그대로 생인 이유와 같다.

가르생이 이네스를 지옥의 원인으로써 받아들인 이후, 이네스는 조금 더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가르생에게 “당신은 삼십 년이나 스스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왔어요”(78)라고 가르생의 인생을 꿰뚫어 보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게 되지 못한 가르생에게 자신을 설득해 보라고 다그친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데 봐, 내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의 숨결일 뿐이지. 당신을 쳐다보는 시선일 뿐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니야”(79)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이네스가 스스로를 꿰뚫어 보는 말이다. 이네스가 자신을 “당신을 생각하는 이 무색의 사유일 뿐”(80)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시선으로 존재하는 자신을 정의하는 말이며, 시선의 “약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가르생을 심하게 다그치면서도 자신의 존재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말, 이것은 ‘시선’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타인을 향한 멈추지 않는 시선은 시선을 받는 인간에게 공포와 위축감을 자아내고 자기 반성을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인간을 당연하게 이끈다. 시선을 의식하는 자신과 의식해야 할 내용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인간을 부단히 움직이

게 하고 그것은 괴로움을 낳는다. 시선은 이와 같이 타인에게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서 타인의 삶을 지배한다. 그러한 삶이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는 결과를 낳는 물리적 고통이면서 동시에 가르생이 격렬하게 토로한 “머릿속 고통”, “유령 같은 고통”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 지배받는 삶이다. 따라서 시선은 고통이다. 그런데 동시에 시선은 눈에서 나오는 빛이지만 보이지 않는 빛이어서 눈에 보이는 연기보다도 약한 “숨결”에 불과한 것이다. 시선은 “무색”이어서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달리 말하면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어떤 것이다. 그저 “사유”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포를 줄만 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나약한 것이다. 그렇지만 가르생은 “사유”가 주는 극심한 “머릿속 고통”을 느끼고, 인간은 “사유”에 지배된다. “내가 당신을 잡고 있는 거지”(80)라는 자신 만만한 이네스의 말처럼 사유는 인간을 휘어잡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역설적으로 가벼운 것에 불과한 시선에서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에 얽혀 있는 고통을 쉽 없이 느끼는 존재가 인간임을 이네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VI

생에서 무한한 수의 시선을 인식하는 인간은 지옥에서 유한한 수의 시선을 받는 인간과 다르지 않다. 생에서 가능한 많은 수의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의 조건은 사르트르가 그리는 지옥에 놓인 단 2명의 타인이라는 조건과 대비된다. 무한한 수의 타인들의 시선을 삶에서의 거리만큼 멀리서 덩어리진 형태로 느끼는 것은 단한 방에서 밀접히 접촉된 상태에서 뚫어질 듯 쏘아 보는 시선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생에서 인간은 구름처럼 덩어리져 있거나 안개처럼 퍼져 있는 나를 둘러싼 타인의 무수한 시선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 보이지 않아도 타인의 시선이 나를 전방위로 둘러싸고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단한 방』의 지옥에서 한 명의 타인이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생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의식을 그대로 축약해 놓은 것과 같다. 이네스는 “내가 당신들을 보고 있어, 내가 당신들을 본다”(81)라고 말하면서 시선을 이미 의식하고 있는 가르생을 더욱 자각하게 하고 시선의 존재를 부각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알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고통이라는 생과 지옥의 의미를 동일하게 만든다.

생과 사르트르의 지옥이 결국 같은 것이라는 사실은 “혼자서도 나는 군중이야, 군중”(81)이라고 외치는 이네스의 말에서 표출된다. 군중으로 존재하는 생에서의 타인은 지옥에서 단 한 명으로 존재해도 시선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단 한 명의 시선으로도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인간의 숙명과 그것의 잔인함을 가르생의 괴로움에서 처절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시선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때는 오직 밤뿐이지만, “밤이 절대 오지 않는다”(81)는 사실을 가르생과 이네스는 재차 확인한다. 타인의 시선을 느낄 수 없는 때는 인간에게 오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다. 『단힌 방』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시선을 확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르생과 에스텔, 이네스가 “언제까지나 함께 있는”(83) 것임을, 즉 인간과 타인의 시선이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것임을 확인하면서 끝난다. 사르트르가 읽어내는 인간의 조건은 타인의 시선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이 “숨결”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면서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그것이 인간 조건을 구성하고 있음을 사르트르는 서늘하게 말한다. 가벼운 숨결은 인간의 삶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무겁다. 다른 것이 같은 것이며 대비되는 조건이 결국 서로를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대비되는 시간 속의 인간을 통해 사르트르는 설명한다. 생과 지옥은 같은 것임을, 단힌 방이 곧 인간이 놓인 생의 조건임을 말하는 것이 『단힌 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용문헌

- 사르트르, 장 폴. 『닫힌 방 · 악마와 선택 신』. 지영래 번역. 서울: 민음사, 2022.
- \_\_\_\_\_.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번역. 서울: 문예출판사, 2023.
- \_\_\_\_\_. 『존재와 무』. 정소성 번역. 서울: 동서문화사, 2023.
- 알리기에리, 단테. 『신곡: 지옥편』. 박상진 번역. 서울: 민음사, 2007.
- 이창석. “사르트르(J.-P. Sartre)의 ‘현상학적 시간론’에 관한 고찰 : 의식에 있어  
서 시간성과 영원성의 선험적 관계”.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100:  
2021, 391-411.
- Heim, Caroline, Heim, Christian. “No Exit from the gaze: Sartre’s theory  
facilitated through aspects of Meisner’s practice.” *Journal of  
Dramatic Theory and Criticism*, 29(2): 2015, 127-145.
- Sartre, Jean-Paul. *No exit, and three other plays*. Trans. Stuart Gilbert and  
Lionel Abel. New York : Vintage Books , 1955.
- \_\_\_\_\_. *Being and nothingness : an essay on phenomenological ontology*.  
Trans. Hazel E. Barnes. New York: Citadel Press , 2001.
- \_\_\_\_\_. *The Philosophy of Jean-Paul Sartre*. Edited by Robert Denoon  
Cumming. Abingdon, Oxon: Routledge , 2012.
- Zuraikat, M. J. and Mashreqi, S. “The Existential Manipulation of Freedom  
in Sartre’s No Exit.” *International Journal of Arabic-English  
Studies*, 22(2): 2022, 119-132.

## Abstract

# The Construction of Human Being in Sartre's *No Exit*: The Contrast between Life and Hell

Lee Jiah

Jean-Paul Sartre's *No Exit* depicts humans in life and hell by describing the hell with no exit. It contrasts life with death by portraying lives in and after life of humans who entered the room with no exit. However, Sartre's theory delineates how the contrasting things are not different. This paper analyzes the conditions to which humans in the room are subject and proceeds to examine the nature of human being. It can be possible by detailedly examining the conditions which the room have. In the process, Sartre's theory serves as a demonstration that the contrasting elements are not totally different but actually same. It is the way of constructing Sartre's theory and becomes the way of examining humans in the room. Specifically, Sartre's perspective of time penetrates *No Exit*: He sees the three elements of time, which is past, present and future, as a totality not as the independent elements. In his theory, the temporality of *No Exit* forms the totality without being divided into life and death. And humans living in the temporality reveals the being of existence. Through Sartre's *No Exit*, one can get a sense of the existence of human being who lives in positivity which affirms the contrasting elements as the same.

## Key Words

Jean-Paul Sartre, *No Exit*, hell, temporality, existence

## Revisiting Realism and Modernism through the Lukáćian Lens

Cui Wenwen\*

In the 1930s, there was a debate between Realism and Modernism in the field of Marxist aesthetics. At the beginning, it was mainly reflected in the evaluation of the Expressionism, and at the later stage, it focused on Realism. Georg Lukács, a radical supporter of the Realism, attacked Modernism for its detachment and disconnection from social reality with the theory of reification and the dialectic of totality. However, is Modernism wholly divorced from the literary creation on which Realism is based? Does it deny the historicity of the work and sever the link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Though Realis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vealing social problems and promoting social revolution, its unique narrative method of objectivity and truthfulness is not universally applicable to the times. Moreover, as a part of the capitalist culture, Modernism is not a literary genre that breaks with the tradition, but rather, on the basis of inheriting Realism, it pursues a more innovative and diversified way of expression in its creation to convey the voice of the times, and likewise assumes the responsibility of reflecting social reality.

### I. Background and Introduction

On the whole, the debate in the 1930s involved two issues, one is how to treat literary heritage, especially “contemporary heritage”.<sup>1)</sup> Another point of

---

\* PhD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1) The heritage mainly refers to the emerging literary schools and tendencies like Expressionism that appeared in Europe and America at that time.

the debate is how to understand realistic theory in terms of literary creation and criticism.

After Hitler came to power in 1933, the Expressionism poet Gottfried Benn openly supported the Nazis with his speech, which led to many criticisms, including some from the famous writers Klaus Mann and Alfred Kurella.<sup>2)</sup> In September 1937, they published articles in the German literary magazine to criticize Benn. Klaus Mann argues that the pursuit of a return to the primitive and the absolutization of form problems lead Benn to fascism, and Kurella holds the same idea that the Expressionism will lead us to fascism. That is to say, they believe that Expressionism is one of the roots of fascist thought in Germany. Once this opinion is published, it causes a great uproar in the literary and art world. In June 1938, with the publication of Lukács' article *Problems of Realism*, the focus of this debate begins to turn to the theoretical problem of Realism. Because Lukács uses his own theories as the basis for analyzing other social trends, he holds a firm negative attitude towards Modernism in the 20th century. He published a number of literary essays to explain his own view of Realism to respond others' criticisms.

## II. Lukács' Realistic literary theory

Lukács published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in 1923, which established his status as the "Father of Western Communism". It is also in this article that Lukács puts forward the concept of "reific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word "reification" is one of the cores to understand Lukács' critical theory. According to Lukács, Modernism in the 20th century is essentially consistent with the phenomenon of reification. Modern art forms such as Expressionism tend to reflect social reality in fragments and cannot fully reveal the nature of capitalist society through phenomena. Therefore, he

---

2) Kurella assumed the pseudonym Bernhard Ziegler which he had adopted when he returned home after meeting Lenin in 1919.

advocates the principle of totality and believes that art works should reflect not only reality but also social history. Lukács talks about art and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revolution. His realistic theory of literature and art is mainly based on the reflection and revelation on the reification phenomenon, and takes totality theory as the core content of theoretical thought.

## 2.1. Social reification is the target of realistic critics.

Lukács believes there is no problem in capitalist society that does not ultimately go back to the question of commodities, no solution to which cannot be found in the solution to the riddle of the structure of commodities. The “reification” proposed by him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alienation” proposed by Karl Marx. He proposes “alienation of labor” in capitalism and it is mainly reflected in four aspects: the alienation of the object of labor, the alienation of labor activity itself, the alienation of labor and laborers, and the alie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ll the objects of labor become commodities, and labor activity itself becomes something objective and independent. That causes a negation of labor, in which the worker becomes more and more frustrated and the relations between people become relations between commodities. Lukács criticizes this phenomenon of reification. His critical theory is based on Marx’s commodity fetishism, Max Weber’s rationalization and computability theories, and Georg Simmel’s monetary economics.

Lukács argues that commodity fetishism is a concentrated manifestation of the phenomenon of reification, in which what is originally a product of human creation becomes something that controls and defines the subject of production, and the commodity takes on the power of otherness. As a result, the commodity does not belong to people; instead, it occupies people. The universalization of the commodity form, that is, the emergence of the phenomenon of reification, takes humanity from pre-capitalist society to capitalist society. To grasp the reasons for the emergence of a materialized society, we have to go back in history. It is easily found that the appearance of reification phenomen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apitalist

division of labor. Each worker becomes a link in the chain of capitalist commodity production, and labor becomes mechanized. At the same time, the division of labor makes the object of labor to be decomposed, there is only quantitative difference within labor, qualitative one is ignored. The principle of rationality calculation in Weber's theory is enshrined, which ultimately leads to the reification of human consciousness, and the completeness of bo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labor are severed. All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re transformed into commodities and then into money. In capitalist society, money becomes the only tool for people to identify themselves, and it deepens an epidemic of loneliness and accelerates an alienation of human being.

Lukács' reification theory is consistent with his realistic literary theory in criticizing capitalism. He believes that literature and art should reflect the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human alienation, reveal the various illusions in the capitalist society, so as to achieve the purpose of criticizing the capitalist society. However, in Lukács' opinion, modernist art often uses broken forms to express the content of fragmentation, fails to see the nature of capitalist society through the phenomenon of reification. Even worse, Modernism takes a dispassionate attitude, like a cool spectator, which is actually a kind of defense rather than criticism of the development of capitalist society. From this we can see that Lukács' criticism of Modernism is not only an aesthetic concern, but also a political concern.

## 2.2. Totality is highly regarded as the principle of Realism.

After the analysis of the reification phenomenon, Lukács emphasizes a totality way of thinking,<sup>3)</sup> calling on people to step out of their own part of the division of labor. This totality thought reflected in art field is that art

---

3) Lukács' totality thought is mainly influenced by the ideas of Hegel, Weber and Marx. In traditional philosophy, subject and object are first divided into two parts, and then the identity is sought in dialectical unity. Weber puts forward the concept of totalit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in order to solve the economic problems of capitalism. Marx believes that capitalism creates the world market and makes the world economy an objectively interconnected totality.

works should not reflect the fragment of society, it is supposed to reflect the nature and general laws of society. He believes that capitalist society is a totality, so people's way of thinking should also start from the concept of totality. Literary works should emphasize the integrity of the human being, closely integrate the character with his daily life, and attach importance to the objective connection between man and society. At the same time, he emphasizes the use of Marxist methods to guide the direction of literary development, and highlights the need for literary works to be permeated by the spirit of history and to reflect the trends of the times. In this way he criticizes and refutes other literary schools. For example, the Avant-Garde pays attention to the decadence, confusion, loneliness and anxiety of people in the highly developed capitalist society, but it can only see the immediate and partial appearances of the reality. Moreover, Lukács criticizes Expressionism represented by Friedrich Schiller and Naturalism represented by Émile Zola. Schiller believes artists should hold a negative attitude toward life in order to transcend the reality. In his creation, he uses abstract ideals to replace objective reality, such as bravery, kindness and other abstract concepts to create the hero in his mind. This is criticized for it makes the characters in Schiller's works become a simple mouthpiece of the spirit of the era. While Naturalism reflects and reproduces real life like a mirror, which loses the function of art to criticize reality.

In general, Lukács believes that literary works should reflect the totality of the society and history, but Modernism presents two tendencies: either too subjective to reveal the revolutionary and critical nature of literary works, or too objective to reflect the hidden reality.

### 2.3. "Typical Theory" as the core and "Narrative" as the writing technique.

The core of Lukács' Realism is the theory of the typical. By shaping the typical and describing the commonness and individuality, literature works can reveal the social nature, reflect the whole with parts, and present the social reality completely. Lukács' theory of the typical is enriched and

developed on the basis of Marx and Friedrich Engels' theory of "reproducing typical characters in typical environment". He believes that the typical is a special synthesis, which combines the general and the special in the characters and the environment. The main concern of Realism is totality, and the typical is the core, so the complete personality of man and the typical are combined. By typification, Realism describes and anticip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and reality, that is, the totality.

In addition, in his essay "*Narrate or Describe?*" published in 1936, Lukács praises the realist technique of "narrative writing" by referring to the differences between Zola's and Tolstoy's depictions of horse-racing scenes. He points out Zola depicts it from the point of view of a spectator, while Tolstoy narrates from the point of view of a participant ("Narrate" 110-48). He supports Tolstoy's way of narrative and argues that a good narrative is not a detailed, picturesque depiction of an event, but rather an account of human destiny, drawing on the things of life to show the connection between the character and society. A good narrative is formed naturally in the order of events and is an inevitable trend of historical development. Lukács supports the fact that writers have already observed and thought deeply about society when they create literature works, and the material should be entirely taken from society and thus reflect it.

### III. Lukács' criticism on Modernism

Lukács regards literary criticism as an integral part of Marxism. Especially in the 1930s and 1940s, the failure of some proletarian revolutions and the increasing reification of society forced Lukács to use realistic literature as a shield to resist all literary genres that might aggravate social alienation. Therefore, he holds a critical dismissal of modernist literature that reflects social isolation and concern for the fate of the individual. His critics on Modernism are mainly embodied in the article *The Ideology of Modernism*.



### 3.1. Modernism cannot reflect the law of development of society as a whole.

Totality is the theoretical principle of Realism which Lukács insists on. Since it has been introduced above, the concept will not be repeated here. Seen from the totality perspective, the core of Lukács' attack on Modernism is "ontologism". For Realism, man is a social animal. His individual existence and "ontological being" cannot be distinguished from his social and historical environment. While for Modernism, man is by nature solitary, asocial, unable to enter into relationships with other human beings. Solitariness is a specific social fate in Realism, but for Modernism, it is universal and common. He points out that every human activity, every feeling for various phenomena,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specific social relations, whereby the individual maintains an objective link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overall destiny of mankind. Realism, because of its dialectical creative totality concept, is characterized by objective reflection of reality and the realization of interac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society, whereas Modernism insists on the idea of the eternal loneliness of human beings, and is thus unable to establish a link between human beings and others and society, and fails to realize the dialectical development of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leading a reflection of reality in a fragmented manner.

### 3.2. Modernist works ignore the social environment and partially emphasize subjectivity.

In Lukács' point of view, realistic works can reflect the unity of the outer world and the inner world, and only this kind of aesthetic thinking with a totality tendency can show the nature of capitalist society. On the contrast, the Modernist works pay much more attention on subjectivity, leaving the main subject with only abstract potentiality,<sup>4)</sup> only belonging to the

---

4) In *The Ideology of Modernism*, Lukács points out that the view of human existence has

subjective scope, thus exacerbating the subject's alienation and departure from society. He attacks Modernism denies the objectivity of the external world, ignores the role of objective reality, and pays too much attention to human feelings and emotions, falling into inwardness. This aesthetic logic can only lead to self-denial and exacerbate the alienation of the individual from society. It can be seen that Lukács' criticism of Modernism is also deeply rooted in his concern for the phenomenon of reification, which has penetrated into the fields of law, politics and literature and has formed a social ideology. Lukács compares James Joyce's stream-of-consciousness and Thomas Mann's monologue, both of which depict the inner world of the characters, but Lukács believes that the monologue is superior in reflecting reality. The reason lies in that through monologue, the character's experience and development is not just a form of self-expression, the reader can see not only the impact of society on his complexity of characteristics, but also his past, present and even his future. This involves a grand historical narrative that can reflect the reality of society. He criticizes Joyce's stream-of-consciousness technique in *Ulysses* is no mere stylistic device, and he thinks that this kind of lack of realistic narrative can only show the static and isolated individual phenomena, which cannot reflect the actual foundation of the society, for is only a kind of escaping from the reality.

### 3.3. Modernism is not conducive to shaping typical characters.

Lukács has always been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 of human, and he believes that the purpose and task of the proletariat is to restore human integrity. In Realism works, shaping typical characters can represent a group of people through one person, which is conducive to establishing the connection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However, Modernism emphasizes the alienation and independence of human nature, which leads to the

---

specific literary consequences, one of them is potentiality which can be seen abstractly and concretely. Abstract potentiality belongs to the realm of subjectivity while concrete one is concerned with the dialect between the individual's subjectivity and objective reality. See pages. 1220-21.

separation of human's complete personality. Therefore, the character image created by Modernism cannot reflect the nature and law of social life, and cannot combine characters with environment in an organic form, so it is not conducive to the shaping of typical characters.

### 3.4. Modernist works lack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Realist works focus on exposing the darkness of society, criticizing the evils of capitalist reality, and advocating human liberation. In Lukács' opinion,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that Modernism lacks. In a word, it lacks a sense of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in real life. Modernists believe that individuals cannot change the world, so they adopt a dispassionate, indifferent even evasive attitude towards reality. What is present in almost all modernist literature is the negation outward reality which leads Modernism to a fascination with morbid eccentricity. What's more, Lukács holds the idea that Modernism literature is lack of a sense of perspective which is of great importance in literature. "It [the sense of perspective] determines the course and content; it draws together the threads of the narration; it enables the artist to choose between the important and the superficial, the crucial and the episodic" (Lukács, "Ideology" 1226). In the sense of perspective, every choice of human behavior has an intrinsic meaning. To put it simply, in a literary work, we can predict what an individual will do next in a given situation, and this prediction is often reasonable because it is in line with the trend of social development. However, Modernism replaces the sense of perspective with the human condition, and all realistic descriptions are devoted to depicting human's angst, so that the situations and characters do not reflect inner meaning, lack interaction with underlying ideologies, then deprive the reader of a motivated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s' behavior. As a result, Lukács argues that Modernism denies reality and reflects only the writer's anxieties about society, and literature that emerges from spectatorship and escapism is doomed to fail in its task of awakening humanity and criticizing society.

#### IV. The limitations of Lukács' theory

It is not hard to see that Lukács' conception of Realism is absolute and an either-or situation, and in doing so he attacks and criticizes any school of Modernism. However, it is necessary to look objectively at the limitations of his views. According to Lukács, the essence of literature should not be an intuitive reflection of the objective world, but rather a narrative that is attuned to the totality of history. The true greatness of Realism lies in the fact that it depicts people and societies as complete entities, rather than showing just one aspect of them.

Yet is Modernism, which aims its focus on the inner world of the individual, always incompatible with the realist tradition? Let us think about Virginia Woolf, who is famous for her stream-of-consciousness approach, she is a pioneering writer of Modernism, and she also holds the belief that novels should be closely related to life, and the purpose of novel writing is to reflect life. In *Modern Fiction* and *Mr. Bennett and Mrs. Brown*, she accuses Edwardian realist writers of focusing only on the depiction of the external world and neglecting the spiritual world and inner voices of their characters. Actually, this notion has similarities with the Realism upheld by Lukács. He argues that "description" can only give clear expression to what is happening in the here and now. It benefits to embodying an objective and informative integrity but also makes it an interlude that can be repositioned to any place, which means the development of the plot cannot follow the inevitable trend of historical development. This is also what Woolf concerns, we cannot assume what kind of character Mrs. Brown is and what kind of things she has experienced just by the description of the carriage she is in and how she gets the land lease, but we should "narrate" the whole story of her as the main character, pay attention to her inner world, place her personal development in the trend of the whole social development, and grasp the character's personality in the whole social background.

In addition, as the focus of Lukács' attack on Modernism, the problem "lack of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in reality" can also be rejected from

the analysis in modernist works. Woolf's first stream-of-consciousness novel, *Jacob's Room* (1922) has largely been regarded as a break between Modernism and traditional literary forms. However, if we analyze it carefully, we will find that the realist tradition is not rejected by Modernism, but inherited and developed. *Jacob's Room* depicts the short life of Jacob, a young man in the Empire during the interwar period (1918–1939). Instead of a compact storyline, the novel offers a jigsaw puzzle of countless pieces to complete the portrayal of Jacob. However, the character of Jacob is like a prism that maps the whole picture of post-war British society: Jacob's death is a narrative about the World War; Florinda's poverty in mind and Miss Eliot's ignorance of politics reflect the problems of education and repression on women in British society; the Cambridge professor's view of young students as "childish" and "absurd" mirrors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s of the 20th century in Britain; the scene where people are sleeping when the Guy Fawkes scarecrow is burnt down presents their indifference to the societal shift as a result of alienation in capitalist societies.

In his reading of the novel, Pam Morris pays attention to the title of the article Jacob writes--"Does History Consist of the Biographies of Great Men?"--and argues that the title is a clear reference to the essay entitled *On Heroes, Hero-Worship, and Heroic in History* in Thomas Carlyle's book, which Jacob has received as a prize. The title is indeed "darkly ironic given the premature, pointless deaths of so many young men in trench warfare" (Morris 9). In the book, Carlyle discusses the lives and achievements of eleven heroes of different types, such as prophetic-heroes and poet-heroes, in an attempt to elucidate the meaning of heroic qualities and to promote the heroic view of history that *the history of the world is the history of great men*. However, as the title suggests, Jacob doubts the admiration of heroes in the real world. What Woolf conveys is that the respect for the battlefield heroes promoted by the British Empire is a kind of blind worship, and that those youths like Jacob lose their lives prematurely and senselessly in the battlefield of capitalist expansion, which is a kind of irony and critique of social ideology. Furthermore, Morris also argues that

the title “forms part of Woolf’s pervasive attack upon gender hierarchy throughout the text” (9). Because there are no women in the narratives of the heroic view of history, and women are often seen as inferior, subordinate beings to men. This sense of male superiority is also fostered by the Hellenism that Jacob indulges in, and Woolf uses this to offer a profound critique of gender injustice.

Hence, Woolf does not totally attack and reject Realism; she foresees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human nature, and appeals for a more in-depth writing technique to reflect the reality. After the First World War, people’s consciousness and thoughts changed drastically, and they doubted the meaning of life and their own existence. Confusion and loneliness became the norm, and Woolf’s narrative technique aims at conveying this crisis. Her portrayal of Jacob can be regarded as a typical image of a young man growing up in the interwar period, who is subject to the rules of social development tendencies and limited by the most common social realities, and forming a personality that belongs uniquely to this era. The new writing methods adopted by Modernism can complete the narrative of characters in social history, and can also achieve the purpose of literary works to recognize and intervene in reality.

## V. Conclusion

In his essay *Problems of Realism*, Lukács points out that this discussion in the 1930s is not a purely literary discussion. The reason why it is able to create such a great momentum and arises widespread interest is because of the political issue of supporting anti-fascism behind it. The essence of the debate is the dispute between two aesthetic paradigms, including political philosophy, social theory, cultural criticism and so on. In general, Lukács’ realistic theory of literature and art mainly starts from thinking about the reification phenomenon, takes totality as the core content of theoretical thought, and constructs humanism as the aim. Lukács makes an in-depth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realistic literature works, and his sharp

criticism directly points to the capitalist society and its ideology. His ideas have enriched the ideological connotation of classical Marxist realistic literary theory, and have made strong critical and realistic significance. He crosses over from capitalist ideology to proletarian revolution and Marxism. Therefore, his aesthetic theory of literature and art presents a dual nature: it can not only adhere to the progressive and revolutionary nature of Marxism, but also commit to objectively evaluate and inherit the excellent cultural heritage of capitalism.

However, it cannot be ignored that any literary trend has its advanced nature and limitations. Lukács excessively praises Realism and ignores the innovation and progress of Modernism. This absolute dichotomy between Realism and Modernism can easily lead to an oversimplification of one or the other. Besides, from the analysis of Woolf's creative philosophy and the interpretation of her work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Modernist innovations in writing techniques are based on tradition and they are the adaptive improvements to modern society. Thus, for literary criticism and study, it is important to prompt people to appreciate Realist works as well as to try to come up with guidelines for creating new works that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In the later period of this debate, Bertold Brecht writes an article to refute Lukács, in which he points out that the most obvious feature of realistic literature is its belligerence, but the need of it is constantly changing. As a result, the writing method of Realism should also be changed with the continuous upgrading, and cannot be confined to a certain creative mode and concept. "Were we to copy the style of these [nineteenth-century] realists, we would no longer be realists." (Brecht, 81). Reflecting the nature of society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e use of realist methods, and the modernist school also has its own unique way to fulfil the task of the times. It is not against the tradition, but is built on past successes to make further advance. The early to mid-twentieth century is a period of major social transformation and change, with two World Wars,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has presented the writers of Modernism

with a very different social outlook from that of the past, and the traditional mode of creation can no longer be fully implemented, for it fails to depict the more complex, diversified and uncertain social reality. Thus, the new era calls for a new way of creation, which should be dynamic and innovative. Just as Morris says, “A different world of possibilities is struggling for perceivability, a process that requires new language and new forms” (9). If one persists in the blind worship of old traditions and patterns, one is bound to fall into formalism and bog down the development of literature.



## Works Cited

- 盧卡契文學論文集（一）[Lukács Literary Essays (1)]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ress, 1980.
- 盧卡契文學論文集（二）[Lukács Literary Essays (2)]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ress, 1981.
- Brecht, Bertold. "Against Georg Lukács." in *Aesthetics and Politics*, London: Verso, 2007. pp66-84.
- Carlyle, Thomas. *On Heroes, Hero-Worship, the Heroic in Histor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Chen, Shanshan. "Debates about the Realism by Lukács, Brecht." Master's thesis, Harbin Normal University, 2012.
- Lukács, Georg. *Marxism and Human Liberation*. Edit. E. San Juan, Jr. New York: Dell Publishing Co., Inc. 1973.
- \_\_\_\_\_. "Narrate or Describe?" in *Writer and Critic*, Trans. Arthur D. Kahn. New York: Grosset & Dunlap, 1971. pp110-48.
- \_\_\_\_\_.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Trans. Du Zhangzhi, Ren Li and Yan Hongyuan. Beijing: The Commercial Press, 1992.
- \_\_\_\_\_. "The Ideology of Modernism." Edit. David H. Richter. *The Critical Tradition: Classic Texts and Contemporary Trends*. Third Edition. Boston, New York: Bedford/St. Martin's, 2007. pp1218-32.
- \_\_\_\_\_. "Problems of Realism." Select and Edit. Zhang Li. *The debate on Expressionism*. Shanghai: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Press, 1992. pp151-81.
- Ma, Qingqing.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Max Weber's rationalization on Lukács' reification theory." Master's thesis, Shanghai Normal University, 2014.
- Marx, Karl, and Engels, Friedrich. *Collected Works*. Vol.8. Trans. Compilation and Translation Bureau of Marx, Engels, Lenin and Stalin. Beijing: People's Publishing House, 2009.
- Morris, Pam. *Jane Austen, Virginia Woolf and Worldly Realism*.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7.

Steffens, Daneet Rachel. "Virginia Woolf, Salman Rushdie, Tom Robbins: Magic Realism in English Language Literature". New York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1999.

Woolf, Virginia. "Modern Fiction." *The Common Reader*: First Serie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25. pp150-58.

\_\_\_\_\_, *Mr. Bennett and Mrs. Brown*. London: The Hogarth Press, 1924.

\_\_\_\_\_, *Jacob's Room*. London: The Hogarth Press, 1949.

Xu, Xi. "Lukács as a Literary Criticist:1931-1945." *Jiangsu Social Science*. 05(2017): pp195-201.

## Abstract

## 루카치의 렌즈를 통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재조명

최문문

이 논문은 1930년대의 문학 논쟁을 바탕으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에 대한 문학 평론가 게오르크 루카치의 견해를 재조명한다. "서구 공산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진 그는 20세기 마르크스주의 발전의 중추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물화를 공격하고 일반적인 사회 발전의 법칙을 논하고 인물의 전형을 형성하는 데 있어 리얼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하며, 리얼리즘이 개인의 주관성과 사회적 객관성의 변증법적 발전을 실현하는 가운데 사회 문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대중의 정신을 해방시키며 사회 변화를 촉진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더니즘은 형식이나 개인의 내면세계에 주로 주목하는 만큼 인물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자본주의의 물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에 그의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본 논문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에 대한 루카치의 논의를 재점검하고 버지니아 울프의 모더니즘 텍스트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서, 모더니즘을 단순히 전통적인 리얼리즘과의 단절로 비판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맥락에서 발전한 혁신적 사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학의 사조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으나, 그로 인해 특정 사조만을 찬양하거나 부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학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보지 못하고 편파적인 평가만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있다. 새로운 시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언어를 요구하기 마련이기에, 문학 작품은 시대와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지속적인 생명력과 날카로운 비평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Key Words

게오르크 루카치; 리얼리즘; 모더니즘; 물화; 주관성과 객관성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Request Speech Acts for English by Native Russian and Native American English Speakers\*

Orazbekova Aidana\*\*

## I. Introduction

In the period of an anthropocentric approach to the study of language and speech activity, there is a heightened interest in human behavior in the contex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given the frequent occurrence of communication difficulties between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cultures. They are the result of a lack of the necessary communication skills. To find solutions to these issues and reduce intercultural tensions, it is vital to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ech of other cultures and the cognitive foundations of discursive activity.

Following Searle's notion (1979), we view communication as a collection of speech acts undertaken for a particular goal. From the perspective of linguistic pragmatics, however, the meaning of language units may not correlate with the meaning that these units transmit in the structure of a speech act, and especially not with the meaning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are attempting to convey. Here, cultural differences play the leading role. Vezhbitskaya, for instance, believes that "cultural standards expressed in speech acts vary not only among languages but also

---

\* This article is a part of Orazbekova Aidana's Master thesis.

\*\* MA graduate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across regional and social varieties of the same language. There are discernible distinctions between Australian and American English, "white" and "black" English in the United States, middle-class and working-class English, etc." (Vezhbitskaya, 2001: 26). According to Larina, "it is vital to grasp in what communicative context speech acts can be utilised, what their pragmatic significance is and what communicative activities are required in a specific communication situation" (Larina, 2003: 10). Consequently, it is vital to understand the speech act strategies of the culture under study.

This study focuses on the speech act of request in various communication contexts and how it is accomplished in communication by two sets of speakers: participants of Russian linguistic culture who speak English with varying degrees of competency in this unit of communication, and participants of American linguistic culture. The selection of these two groups of speakers was motivated by a desire to determine the effect of foreign language competency on pragmatic knowledge. The results of the associative experiment will disclose the attitude towards the notion of "request" in the linguistic cultures under study, which will assist us in comprehending the impact of probable disparities in the understanding of "request" on the strategies of speech acts.

The modern world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in sociocultural conditions, communication methods, and increased intercultural contacts. Due to these changes, it has become essential to comprehend the differences in linguistic expressions that depict various relationships among people. This understanding is crucial to minimize conflicts and enhance communication effectiveness, particularly when executing the speech act of request. All of the preceding factors influe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ategies of the speech act of request in English from the perspective of linguistic pragmatics, as well as to identify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peech act of request in the speech of Russian speakers of English. A number of particular tasks must be don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 to conduct a written discourse completion test with the participation of

Russian and American respondents to identify priority strategies for making a request in English;

- to conduct a pragmalinguistic analysis of the main strategies of speech acts of request for all the test groups;
- to identify linguacultural similarities or differences in the strategies of the speech act of request.

As a result, the following list of research questions for this thesis is raised:

1. What behavior do Russian speakers of English with a low linguistic level exhibit in comparison to those with a high linguistic level with regard to the degree of directness of request strategies?
2. What are the main differences in the request strategies of Russian speakers of English in comparison with the ones used by native American English speakers?
3. What kind of request strategies do Russian speakers of English adapt depending on social distance and social power between interlocutors in different situations?

## II. Literature Review

### 2.1. Speech Act of Request

To express the speech act of request in English, there is a fairly wide range of forms that differ in the degree of directness of the expression of illocutionary intention. Researchers distinguish three levels of directness:

1) the most explicit, which uses such forms as the imperative mood (*Do the room, please*), performative verbs (*I offer you follow him*), and the so-called hedged performatives (*I would like you to explain this better*):

2) indirect speech acts, which include various types of interrogative sentences that reduce the categoricalness of motivation (*could you, would you, why not?* )

3) implicit, hidden requests (hints), which can be put into a question (*Why is the garage open?*) or a statement (*It's freezing in there*).

In the English-speaking society, which is rooted in the values of individualism, personal autonomy, and egalitarian relationships, the prevalent method of conveying a request is often acknowledged to be through the use of indirect request speech acts: interrogative sentences like *Would you mind passing the salt?* At the same time, the request, as can be seen from the examples, can be directed both to the listener and to the speaker. Additional means of reducing categoricalness can be the use of please (*Can I take a seat, please?*), negation (*I am curious if you wouldn't mind helping me?* ), the past tense of the verb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 the subjunctive (*it would be nice if you did homework instead of me*), and depersonalising the request (*it may not be a terrible idea to assist him*).

In the context of Russian-speaking culture, which is fundamentally collectivist, the prominence of personal autonomy and the notion of privacy is comparatively diminished when compared to English-speaking culture. Consequently, the imperative to employ a distancing strategy for the execution of a speech act of request is not as pressing as it is in English-speaking culture. According to Larina (2003), the act of making a request is seen entirely normal within a collectivist society, as the speaker relies on the willingness of the communication partner to fulfil the request. This explains the wider use of direct ways of expressing a request, primarily the incentive mood. The manifestation of the principle of politeness in such cases is not an indirect speech act, as in English, but such markers of politeness as *please, be kind* (Пожалуйста, *помоги мне завтра* <*Pozhaluysta, pomogi mne zavtra* > Please, help me tomorrow), negation (*Вы не подскажите, как мне найти врача?* < *Vy ne podskazhete, kak mne nayti vracha?* > Can't you tell me how to find a doctor?), indirect forms inclinations (*Я хотел бы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 *Ya khotel by*



*poluchit' konsul'tatsiyu* > I would like to get advice), diminutive and affectionate forms of address (*Мой дорогой друг, подожди, пожалуйста ста.* <*Мой дорогой друг, подожди, пожалуйста.*> My dear friend, come, please).

According to Rintell, the speech act of request consists of several components: 1) the beginning of a conversation, 2) an appeal, 3) a request for a request (*Could you do me a favour?*), 4) a motivation for the request, 5) the actual request (Rintell, 1989). Blum –Kulka considers the speech act of request as a three-component formation: 1) attracting attention, 2) auxiliary moves, 3) the actual request. Auxiliary moves include starting and maintaining a conversation, asking for a request (*Could you help me?*), justifying 44 requests, promises, threats (Blum-Kulka, Kasper, 1989). Despite the difference in opinions about the structure of the speech act of request, all linguists consider the actual request as the core of the request, and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the request for the request, the motivation for the request, and other communicative moves as supporting or auxiliary speech acts. Auxiliary speech acts complement the main speech act, softening or increasing the force of the request.

Hudson, Detmer, and Brown (1995) identified request head act strategies and request supportive move strategies. Strategies for the main act of the request are as follows:

- 1) preparatory – a request for a status that is possible for request – *Can I ask...? Could you give ...?*
- 2) hint – *Are you going home now?; I didn't attend the classes the day before;*
- 3) expression of desire – *I'd like to borrow..., I want to see..;*
- 4) indirect performative – the illocutionary force is expressed modal verbs or verbs expressing intention – *I must ask you..., I ought to request you;*
- 5) statement of fact – a statement that does not leave the addressee no choice – *I have to cancel the meeting.*

Request supportive move strategies by Brown and Detmer (1995) include the following:

- 1) the basis for the request – *I forgot my notebook;*
- 2) elimination of possible objections – *I know you are very busy...?*

- 3) reducing the effort required to fulfill the request – *It shouldn't take long;*
- 4) preliminary designation of the request –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 5) apologies – *I'm telling sorry for bothering you;*
- 6) gratitude – *Thanks for your time.*

The speech act of request, being a directive, implies the expenditure of time, requires effort from the addressee, and to some extent limits his freedom. In order not to jeopardise the "negative face" of the addressee and at the same time pay attention to his "positive" face, additional language means are needed that accompany the request head act strategies. These linguistic means constitute request supportive move strategies. Auxiliary speech acts serve to maintain rapport, and the frequency of their use varies across linguistic cultures.

In addition to the request head act strategies and request supportive move strategies, there are also amplifiers of communicative intention (downgrader strategies), which can be both lexico-phraseological and syntactic (Hudson, Detmer and Brown, 1995).

The lexico-phraseological amplifiers of communicative intention include the following:

- 1) politeness markers – *Please...*
- 2) expression of the speaker's opinion – *I'm afraid, I wonder/think/believe/suppose...*
- 3) appeal
- 4) circumstances with the value of muting – *a bit, a little*

Among the syntactic amplifiers of communicative intention are the following:

- 1) conditional sentences
- 2) the aspect of duration – *I'm wondering if ...*
- 3) the use of the past tense in relation to the present – *I wanted to ask you ...*

By distinguish between direct and indirect requests, it can be said that direct request requires a clear and concise form of presentation. The tactical statement of this request can be the imperative *Do X or Don't do X*, the softened imperative *Do X or Don't do X, please*, or the strengthened imperative *Do X or You do X*. Conventionally, an indirect request has the

form of a question and asks about the ability of the addressee to perform a speech act: *"Can you give me a pencil?"* A simple indirect request does not contain an appeal to the addressee and does not contain a direct reference to the action to be performed. It gives the addressee the opportunity to interpret the statement himself, for example, *It's hot in here.*

Fukushima (2003) gives some features of indirect requests:

1. The addresser does not clearly show that the statement is a request, it does not explicitly refer to the addressee or to the action to be executed.
2. The meaning of the statement does not match its intended meaning.
3. The addresser must make an assump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statements.
4. More than one interpretation of the statement is possible.
5. The addressee does not lose face, even if he interprets the indirect request as a simple statement. The addresser also does not lose face if the addressee's interpretation does not match the addressee's intention.

## 2.2. Research Design on Pragmatics

Tests designed to evaluate pragmalinguistic knowledge were separated into three types by Brown and Hudson (1995): tests with a choice of response, tests with free presentation, and personal evaluation tests. A written Discourse Completion Test is a test with a free presentation. In 1982, Blum-Kulka was the first person to apply this test for the purpose of researching the pragmatic aspect of speech act (Blum-Kulka, 1982). These kinds of tests have been utilised by a great number of researchers in their work (Barron, 2001; Trosborg, 1995).

Generally speaking, Oller (1979) is regarded as the one who first introduced the pragmatic test. For these kinds of examinations, he proposed using two limiting factors: To begin, the content that will be on examinations should not be taught in the form of individual words and phrases but rather in the form of real-life scenarios that involve language use. Second, exams should incorporate linguistic material that is based on real-world circumstances to the greatest extent that is practically possible.

Levenston (1975) initially created the Discourse Completion Test as a way of testing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immigrants to Canada; Blum-Kulka (1982) subsequently extended the test to explore speech acts. Although the DCT has the disadvantage that speech acts collected by the DCT are not performed in their full discourse context and they are more formal than those in natural conversation because they are written rather than spoken (Rintell and Mitchell, 1989), a number of researchers have discussed the benefits of the DCT as a data collection method (Beebe and Cummings, 1996; Kasper and Rose, 2002).

It has been argued by Kasper and Rose (2002) that "DCTs provide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speakers' sociopragmatic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specific linguistic and pragmatic options are acceptable, as well as their pragmalinguistic understanding of the tactics and linguistic forms by which communicative actions might be executed ". In contrast to "natural" data, "DCTs have the benefit of providing a controlled environment for the speech act and may be utilised to gather huge amounts of data fairly fast" (Márquez-Reiter, 2000). In addition, instruments like DCT that look at communication in artificial settings help researchers better control factors and understand the structures behind real communication (Billmyer and Varghese, 2000). Furthermore, as stated by Beebe and Cummings (1996), DCTs are useful instruments for investigating preconceived notions of what constitutes a socially acceptable response and learning more about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influences on speech act performance. For these reasons, DCT was utilised to collect information from participants in this study.

### III. Method

#### 3.1. Participants

This study included 30 Russian speakers of English from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and 10 American English speakers who have been working and studying at Nazarbayev University in Kazakhstan. There are three groups of participants: 1. Intermediate speakers; 2. Proficient speakers and 3. Native speakers on which we conducted the study. (see <Table 1>)

<Table 1> Information about participants

	Intermediate Speakers (IS)	Proficient Speakers (PS)	Native Speakers (NS)
Number of Participants	15	15	10
Mean Age	22.3	23.6	30.3
Mean IELTS scores	5.5	7.7	–

3.2. Data Collection

In this study, 40 participants were given Written Discourse Completion Tests (DCT) after a short introduction of the study by the researcher. Although the DCT was administered to the Russian participants in a variety of classroom settings, the experimental circumstances were held to the highest feasible standard. For example, all the participants were given equal amounts of time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and were given the identical set of instructions to follow before beginning the task.

In order to collect data from native speakers, we distributed our questionnaire to a sample of 10 native American English speakers. They originate from various places within the USA and consist of American citizens residing in Kazakhstan. All individuals of indigenous descent in this study willingly and autonomously engaged in the research. Prior to completing the surveys, participants were provided with comprehensive instructions on how to respond to the given circumstances involving social networking platforms. During completing the DCT, all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provide impromptu replies that would accurately reflect real-life utterances in the specified scenarios.

3.3. Materials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utilising Written Discourse Completion Test encompassing 12 different situations requiring request production. To explain the question items properly and decrease the likelihood of misunderstanding, each situation was translated into Russian.

Here, <Table 2> illustrates the many situations that may arise from the various potential combinations of the social variables (two values of social distance and three values of social power) for each speaking act of requests.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12 situations given according to social distance and social power

Request act situations	Social Distance (SD)	Social Power
<i>Situation 1</i>	+	S>H
<i>Situation 3</i>		S>H
<i>Situation 4</i>		S<H
<i>Situation 6</i>		S=H
<i>Situation 9</i>		S<H
<i>Situation 12</i>		S=H
<i>Situation 2</i>	-	S<H
<i>Situation 5</i>		S<H
<i>Situation 7</i>		S=H
<i>Situation 8</i>		S>H
<i>Situation 10</i>		S=H
<i>Situation 11</i>		S>H

A short description of a situation is given to the participants to make them aware of the social distance and social power of the people they are supposedly interacting with. As they would in a real-life setting, the participants are asked to make a request using the request expressions after reading this description of situations. The 12 situations given in the questionnaire were partially modified from Márquez-Reiter’s (2000) and Savić

Milica’s (2014), although most of them were constructed with care by the researcher to reflect everyday occurrences at high school, the private language centre, and the participant’s residence that were thought to be familiar to participants.

### 3.3.1. Types of Strategies in Head Acts

When considering the request strategies that are utilised in the head act, there are gradations that may be used, ranging from directness to indirectness. The imperative forms (i.e., mood derivable)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direct. There are varieties of other formats that state request, all of which are considered direct to a lesser degree. It was reasoned that a request gets essentially less directness (or conventionally indirect) when it moves to a question form, usually, gets usage of some modal form. This is because questions and modal forms are more prevalent in questions. (i.e., query preparatory). <Table 3> illustrates the taxonomy that denotes this shift.

<Table 3> Nine request strategies types in head act – coding categories and examples (Blum–Kulka et al, 1989; Takahashi, 1996; Ellis, 1994; Blum–Kulka and Olshtain, 1984)

Level of directness	Request strategies	Examples
Direct (D)	1. Mood derivable: conventionally speaking, the illocutionary force of the locution is determined to be that of a request based on the grammatical mood of the locution	Clean up the room!
	2. Explicit performative: the speaker identifies the illocutionary aim by naming it directly and making use of an appropriate illocutionary verb	I am <i>asking/requesting</i> you to move to another place
	3. Hedged performative: utterances in which the naming of the illocutionary force is modified by hedging expressions	<i>I'd like to ask</i> you to finish your homework

	4. Locution derivable: utterance which state the obligation of the hearer to carry out the act	Sir, you <i>have to/should/must/ought to</i> move to another place
	5. Want statement: the utterance communicates the speaker's desire and hope that the occurrence referred to in the proposition will indeed take place	<i>I'd like you to</i> stop listening to loud music <i>I want</i> you to stop listening to loud music <i>I really wish you'd</i> stop listening to loud music
	6. Suggestory formula: the illocutionary purpose is communicated through the use of a framing procedure that is formatted as a suggestion	<i>How about</i> going home?
<b>Conventional indirect (CID)</b>	7. Preparatory: the utterance comprises a preliminary condition for the feasibility of the request, often one of capacity, willingness, or potential, as is customary in the supplied language. Extremely frequently, the speaker doubts rather than asserts the presence of the selected precondition	<i>Can/Could/Would</i> we clean up the room? I was wondering if she <i>would</i> clean up the room.
	8. Strong hint: the utterances that only partially relate to an item that is required to carry out the act	Will you be going to work now?
	9. Mild hint: the utterances that don't explicitly refer to the request but can nonetheless be interpreted as requests due to context	You have been quite busy lately, haven't you?
<b>Non-Conventional indirect (NCID)</b>		

## IV. Results

### 4.1. Types of Strategies in Head Acts

As aforementioned, a head act is an integral part of request making that gives rise to the element of request independently of other elements. All the groups exhibit the role of head acts in realizing a request.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gard to how the groups make a request. Equally, the request strategy varies from situation to situation within the identified groups. Most direct, conventionally indirect, and nonconventional indirect levels are salient request strategies represented across the prescribed situations and identified groups. The direct request strategy is a type of request whereby one explicitly makes a request through face-to-face communication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is a request strategy whereby an individual follows procedures underpinning politeness and socio-culture aspects guiding the practice of act of making a request within the realms of language. On the other hand, non-conventional indirect request strategy entails realizing request by making either partial or no references to the element or objects needed. In this request strategy, the function of request making is interpretable as it acts as a hint to what is actually requested or required.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participants with regard to the degree of directness in making a request is summarized in <Table 4>. All the nine types that underpin request realization a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most prevalent request strategy is the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and the least prevalent is the non-conventional indirect strategy.

<Table 4> Statistics of head acts usage

	Most direct					Conventionally indirect		Non-conventionally indirect		
Group	Mood derivable	Explicit performative	Hedged performative	Want statement	Locution derivable	Suggestory formula	Preparatory	Strong hint	Mild hint	Total
IS	29 16.0%	7 3.9%	9 5.0%	14 7.7%	2 1.1%	4 2.2%	113 62.4%	3 1.7%	0 0%	181 100%
PS	2 1.1%	0 0%	1 0.6%	0 0%	0 0%	13 7.2%	155 86.1%	5 2.8%	4 2.2%	180 100%
NS	0 0%	0 0%	1 0.8%	1 0.8%	0 0%	5 4.0%	101 82.9%	14 11.5%	0 0%	122 100%

Note: IS- Intermediate Speakers, PS- Proficient Speakers, NS -Native Speakers

#### 4.1.1. Direct Request Strategy

The direct strategy was significantly used by the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Both groups (intermediate speakers and proficient speakers) exhibited direct request strategy in making requests. On the contrary, native speakers demonstrated negligible use of the direct request strategy. For instance, the native speakers did not apply mood derivable, explicit performative, and locution derivable cases of direct request in making their requests. The 0.8% incidences of hedged performative and want statement were lower compared to their occurrence in both groups of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Among the groups, intermediate speaker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33.7%) of direct strategy, followed by proficient speakers with 1.7% occurrence rate. This showed the tendency for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to use direct request strategy as opposed to native speakers of English. However, the tendency or likelihood for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to use direct request strategy was dependent on their level of proficiency. The decrease in the application of the direct request strategy was seen as the rise in participants' level of proficiency. For instance, the lower application of direct request strategy (1.7%) among proficient speakers compared to intermediate speakers corresponds with their increased proficiency level.

#### 4.1.2.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The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is significantly popular across all the groups. The extent to which all the groups use the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goes beyond average. Proficient speaker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in using the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with an occurrence rate of 93.3%, followed by native speakers at 86.9%, and intermediate speakers at 64.6%. Out of the strategies used in this category, query preparatory was more frequently used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compared to the suggestory formula. For instance, its usage among

intermediate speakers and proficient speakers was 62.4% and 86.1%, respectively. Equally, query preparatory was predominant among the native speakers with a frequency of 82.9%.

#### 4.1.3. Non-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All the participants used the non-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The native speakers exhibited high usage of the non-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y (11.5%), followed by proficient speakers (5.0%), and intermediate speakers (1.7%). Out of the strategies used in this category, strong hint was more frequently used among non-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than mild hint. For instance, its frequency of use among the intermediate and proficient speakers was 1.7% and 2.8%, compared to 0% and 2.2% of mild hint, respectively. Whereas all groups applied the non-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including the native speakers, its overall frequency was relatively lower compared to that of other request strategies, especially the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 4.2. Social Distance and Power

Each situation was analyzed separately to establish the presence or absence of illocutionary modification of request speech acts. Ranking impositions were ignored because illocutionary modifications arise from cultural and contextual forces. Situations with social distance (+SD) and social distance (-SD) were analyzed to establish the degree of illocutionary modification among the native speakers, intermediate speakers, and proficient speakers. The situations with +SD include 1, 3, 4, 6, 9, and 12, whereas those with -SD are situations 2, 5, 7, 8, 10, and 11. For each situation, the power variable is either higher (+P), lower (-P), or equal (=P)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The chi-squar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incidence of illocutionary modification among the participants depends on their proficiency level ( $P < 0.05$ ). Three situations where the speaker is not familiar with the hearer (+SD) and three situations where the speaker is familiar with the speaker (-SD) have been selected for analysis in this section. With

regard to incidences where the speaker is not familiar with the hearer (+SD), native speakers, intermediate speakers, and proficient speakers were required to make a request act to a person they are not familiar with. For example, they have to request a newly recruited groupmate, lecturer, professor, or a passing-by individual to do something.

The results show that participants characterized by +SD frequently used 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ies, as strongly exhibited in situations 1, 3, 4, and 6. The usage of direct strategies was relatively high among intermediate speakers in situation 1 and 3. On the contrary, the use of direct request strategies in +SD situations was extremely low among the proficient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In particular, proficient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largely used 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ies, regardless of the power variable in play. Summarily, intermediate speakers use of direct request strategies, including the mood derivable and want statement,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proficient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Correspondingly, the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was highest in +SD among proficient speakers, followed by native speakers.

In situation 1, the speaker has greater social authority or status than the hearer (S>H), despite the fact that the interlocutors do not know one another (+SD, +P). In this situation, participants across the three groups are required to ask a junior student at the school to take a photo to capture their moment. A similar situation where the speaker's knowledge of the hearer is scanty, yet the speaker has higher social power or status than the hearer (S>H) is reflected in situation 3. The <Table 5> demonstrates the degree to which each group exhibited each request strategy type. The results indicate that intermediate speakers used direct request strategies more than proficient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The mood derivable was the most used direct strategy (20%) among intermediate speakers, followed by the want statement strategy (6.7%). Correspondingly,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y, particularly the query preparatory, was relatively high (73.3%). Comparatively, proficient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used no direct strategy in making their request. In addition,

proficient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showed a strong conviction for conventional indirect request strategies, especially the query preparatory and non-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ies, especially the strong hint. For instance, native speakers exhibited the highest use of query preparatory (100%), followed by proficient speakers (93.3%). The proficient speakers exhibited the highest use of non-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ies (6.7%).

**<Table 5> Request strategy frequencies for situation 1**

	Most direct					Conventionally indirect		Non-conventionally indirect		
Group	Mood derivable	Explicit performative	Hedged performative	Want statement	Locution derivable	Suggestory formula	Preparatory	Strong hint	Mild hint	Total
IS	3 20%	0 0%	0 0%	1 6.7%	0 0%	0 0%	11 73.3%	0 0%	0 0%	15 100%
PS	0	0 0%	0 0%	0 0%	0 0%	0 0%	14 93.3%	1 6.7%	0 0%	15 100%
NS	0 0%	0 0%	0 0%	0 0%	0 0%	0 0%	10 100%	0 0%	0 0%	10 100%

Situation 4 depicts (+SD, -P) scenario where the speaker has less social power or status than the hearer ( $S < H$ ). In this situation, a student is to ask a professor who he or she is not familiar with about aspects of his lecture that he or she did not understand. In this case, the speaker, a student, has less power, while the hearer, the professor, has more power than the speaker does. A similar situation where the speaker and the hearer do not know each other and the speaker has less power than the hearer is situation 9. <Table 6> illustrates the frequencies at which different groups with varying proficiency levels use different request strategies. The table below shows request strategies' frequencies used by intermediate speakers, proficient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The intermediate speakers usage of direct requests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SD, +P) situations. Want statement was the only direct request type that the intermediate speakers used to make requests. The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especially the query preparatory, was also relatively high among intermediate

speakers. However, they did not match the proficiency of proficient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regarding the usage of both non-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ies and conventionally request strategies. For instance, whereas 6.7% of proficient speakers used the suggestory formula, none of the intermediate speakers used it. Equally, native speakers 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strong hints than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Table 6〉 Request strategy frequencies for situation 4

	<b>Most direct</b>					<b>Conventionally indirect</b>		<b>Non-conventionally indirect</b>		
<b>Group</b>	Mood derivable	Explicit performative	Hedged performative	Want statement	Locution derivable	Suggestory formula	Preparatory	Strong hint	Mild hint	Total
<b>IS</b>	0 0%	0 0%	0 0%	1 6.7%	0 0%	0 0%	14 93.3%	0 0%	0 0%	15 100%
<b>PS</b>	0 0%	0 0%	0 0%	0 0%	0 0%	1 6.7%	14 93.3%	0 0%	0 0%	15 100%
<b>NS</b>	0 0%	0 0%	0 0%	0 0%	0 0%	1 10%	6 60%	3 30%	0 0%	10 100%

## V. Conclusion

To draw a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a lens focusing on the language pragmatism between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and native speakers. Based on our investigation, the following findings may be inferred.

To summarize the first finding about the behavior of Russian speakers of English with a lower linguistic level in the degree of directness of request strategies, we can note that the direct request strategy (33.7 %) was mostly used by intermediate speakers. Intermediate speakers, who possess a low degree of skill, face challenges in assessing the possibility of complying with the speech act of making a request. The fact that the intermediate non-native speakers' group has the highest indicator of direct request strategie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due to an insufficient level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respondents rely more on the norms of their mother tongue Russian in which direct request strategy is most preferable.

Despite the fact that intermediate speakers demonstrated a significant exhibition of the direct request strategy, it is undeniable that the frequencies of normally indirect request strategies were notably higher than average (64.6 %). Intermediate speakers exhibited negligible non-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ies (1.7%). Comparatively, the proficient speakers (1.7%) exhibit direct request strategies less than intermediate speakers do. Proficient speakers largely use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ies (93.3%) when making speech acts of request. The use of non-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ies (5%) among proficient speakers is relatively higher compared to intermediate speakers (1.7%), signifying their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pragmatic knowledge and sociolinguistic norms guiding the act of making a request. Overall, the pragmatic expertise of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in the use of request strategies has shown growth alongside the enhancement of their language ability.

To outline the second finding about the main differences in the request strategies of Russian speakers of English in comparison with the ones used by native American English speakers, we can highlight that even with the high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ies' frequencies (64.6% of intermediate speakers and 93.3% of proficient speakers), the relatively high use of direct request strategies (33.7% of intermediate speakers and 1.7% of proficient speakers) and the relatively low use of non-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ies (1.7% of intermediate speakers and 5% of proficient speakers) among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in comparison to native speakers of English (direct strategy 1.6%, 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y 86.9% and non-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y 11.5%) indicates a lack of pragmatic ability regarding the act of making requests. In general, the pragmatic and linguistic proficiency of even proficient speakers in the use of the request strategy falls short in comparison to that of native speakers.

The third finding is related to the request strategies that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adapt depending on various social distance and social power in different situations. In situations characterized by distance variable

(+SD) and low power (-P) between the requestee and requestor (4 and 9), intermediate speakers use of direct request strategies was relatively lower (6.7%) compared to (+SD, +P) situations (26.7%). Correspondingly, none of proficient speakers applied direct strategies in making requests with (+SD) (-P) (+P) situations. Both groups (in +SD, +P situation: 73.3% of IS and 93% of PS; in +SD, -P situation: 93.3% of intermediate speakers, 100% of proficient speakers) significantly used 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ies for making requests. The results suggest that proficient speakers have more preference for indirect request strategies under (+SD, +P, -P). In situations characterized by distance variable (+SD) and equal social power (=P) between the requestee and requestor, the study discovered that intermediate speakers showed the higher use of direct request strategies (31.4%) than proficient speakers (6.3%) did. In contrast, proficient speakers used 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y more (93.7%) than intermediate speakers (68.6%) did. In (-SD, +P) situations, 26.7% of intermediate speakers used direct request strategy while none of proficient Russian speakers used direct strategy, in contrast proficient speakers more conventionally indirect request strategy (93.3%) than intermediate speakers (73.3%) did. Proficient speakers (100%) were more conscious or aware of the need to use indirect request strategies in (-SD, -P) situations than intermediate speakers (93.3%), leading to a tremendous decline in the proportion of direct request strategies' use (0%) and a shift to indirect request strategies. In (-SD, =P) situations proficient speakers showed the highest use of indirect request strategies (93.3% of conventionally indirect and 6.7% of non-conventionally indirect), while 73.3% of intermediate speakers used indirect strategies. Overall, the interplay of social distance and power contributed to the significant usage of socially appropriate and more polite strategies of making requests by proficient speakers. Intermediate speakers showed the least usage of socially appropriate and more polite strategies of making requests. Limited knowledge or lack of awareness of the sociolinguistic rules defining the usage of the American English may have contributed to intermediate speakers relatively low usage of socially appropriate and more polite strategies of making



requests. Moreover, social distance and social power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having intermediate speakers level use socially inappropriate and less polite strategies of making requests.

This study discovered that native American speakers were more socially appropriate and more polite than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Unlike,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native American speakers ingenuity of sociolinguistic pragmatism is informed by their intuition of the social contex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al roles of the interlocutors underpinning the use of language. Therefore, the use of more socially appropriate and more polite strategies and approaches in making requests by native speakers comes more naturally as opposed to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Equally, proficient speakers tended to lean towards embracing sociolinguistic competence, owing to the high degree in which they exhibited socially appropriate and more polite forms of request making such as indirect request strategies, hearer-oriented perspective, mitigating supportive moves, syntactic downgraders and lexical downgraders. However, native Russian speakers of English could not match the sociolinguistic pragmatism of the native speakers because they lacked the intuitive knowledge of social contex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al roles of the interlocutors as prescribed by the rules underpinning the use of American English. The proficient speakers' relatively high usage of socially appropriate and more polite strategies of making requests was informed by their advanced awareness of the rules underpinning the use of American English.

## References

- Barron, A. 2001. *Acquisition in Interlanguage Pragma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 Beebe, L. and M. Cummings. 1996. Natural Speech Act Data Versus Written Questionnaire Data: How Data Collection Method Affects Speech Act Performance. In Gass, S and J. Neu (eds.), *Speech Acts Across Cultures: Challenge to Communication in a Second language*. Berlin: Mouton de Gruyter. 65-86.
- Billmyer, K. and M. Varghese. 2000. Investigating Instrument-based Pragmatic Variability: Effects of Enhancing Discourse Completion Tests. *Applied Linguistics* 21(4), 517-52.
- Blum-Kulka, S. 1982. Learning to Say What You Mean in a Second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8, 29-59.
- Blum-Kulka, S. and G. Kasper. 1989. *Investigating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 Blum-Kulka, S. and J. House. 1989. Cross-cultural and Situational Variation in Requesting Behavior. In Blum-Kulka, S., House, J. and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123-154.
- Ellis, R. 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ukushima, S. 2003. *Requests and Culture: Politeness in British English and Japanese*. Berlin: Peter Lang Press.
- Hudson, T., Detmer, E. and J. Brown. 1995. *Developing Prototypic Measures of Cross-cultural Pragmatic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asper, G. and K. Rose, K. 2002. *Pragmatic Development in a Second Language*. Blackwell Publishing.
- Larina, T. 2003. *Category "Politeness" in English and Russian Communicative Cultures*. Moscow: Publishing House of University

of Friendship of Peoples.

- Levenston, E. 1975. Aspects of Testing the Oral Proficiency of Adult Immigrants to Canada. In Palmer, L. and B. Spolsky (eds.), *Papers on Language Testing 1967-1974*. Washington DC: TESOL. 67-74.
- Márquez-Reiter, R. 2000. *Linguistic Politeness in Britain and Uruguay: A Contrastive Study of Requests and Apologies*.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 Oller, J. 1979. *Language Tests at School: A Pragmatic Approach*. London: Longman Group Limited.
- Rintell, E. and C. Mitchell. 1989. Studying Requests and Apologies: An Inquiry into Method. In Blum-Kulka, S., House, J. and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248-272.
- Searle, J. 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ies of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kahashi, S. 1996. Pragmatic Transferability.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8, 189-223.
- Trosborg, A. 1995. *Interlanguage Pragmatics: Requests, Complaints and Apologies*. New York: Mouton de Gruyter.
- Vezhbitskaya, A. 2001. "Semantic Primitives". *Introduction to Semiotics: Anthology*. Moscow: Academic project.

## Abstract

## 러시아 원어민화자와 미국영어 원어민화자의 영어 요청 화행 수행에 관한 비교 연구

오라즈베코바 아이다나

본 연구는 중급 영어 수준의 러시아 원어민 화자, 고급 영어 수준의 러시아 원어민 화자, 그리고 미국영어 원어민화자의 영어 요청 화행 수행에 관한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들 세 그룹의 영어 사용 화자들의 영어 요청 화행 수행 전략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요청 화행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외국어로서의 영어 사용 러시아 원어민화자와 미국영어 원어민화자와의 비교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그룹 화자들 간의 상대적 영어 요청 화행 수행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추후 언어간의 비교언어학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영어사용자 30명과 미국 영어원어민 10명의 표본답변에서 서면담론완성과제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언어 발달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1) 요청 전략의 직접성 측면에서 언어 수준이 높은 러시아 원어민 영어 사용자에 비해 언어 수준이 낮은 러시아 원어민 영어 사용자의 행위, (2) 미국영어 원어민화자들이 사용하는 영어 요청전략과 비교하여 러시아 원어민화자들의 영어 요청 전략의 주요 차이, (3) 러시아 원어민화자들이 다른 상황에서 대화자들 간의 사회적 거리와 사회적 힘에 따라 채택하는 영어 요청 전략의 종류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결과는 러시아 원어민화자는 언어적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요청 화법 사용에 있어서 화용적 지식의 발달을 보여주었다. 고급 영어 수준의 러시아 원어민 화자가(1.7%) 직접 요청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는 중급 영어 수준의 러시아 원어민 화자보다 (33.7%) 낮았다. 고급 영어 수준의 러시아 원어민 화자가 요청 행위를 할 때 관습적 간접 요청 전략(93.3%)을 주로 사용한 반면 고급 영어 수준의 러시아 원어민 화자(5%) 중 비관습적 간접 요청 전략의 사용은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비관습적 간접 요청 전략의 사용은

중급 영어 수준의 러시아 원어민 화자에 (1.7%)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요청 화법을 지도하는 화용적 지식과 사회언어적 규범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러시아 원어민의 영어사용 요청 전략과 원어민의 요청 전략을 비교한 결과, 러시아 원어민화자의 실용주의와 언어적 역량이 미국 원어민의 영어 요청 전략과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냈다. 영어 원어민(직접 전략 1.6%, 관습적 간접 전략 86.9%, 비관습적 간접 전략 1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 영어 요청 전략 사용 및 비관습적 간접 전략의 비교적 낮은 사용 빈도는 러시아 원어민화자의 화용 능력의 부족을 암시한다. 셋째, 중급 영어 수준의 러시아 원어민 화자와 고급 영어 수준의 러시아 원어민 화자중 사회언어적 숙달도, 사회적 거리, 사회적 권력이 요청 전략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러시아 원어민 화자의 요청 전략 사용에 있어 언어적 숙련도 증가와 화용적 지식의 발달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영어 원어민 화자에 비해 여전히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요인이 러시아 영어 화자의 요청 화행 전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Key Words

요청 화행 수행, 영어, 영어 원어민화자, 영어 요청 전략, 화용론



## 『효원영어영문학』 원고 기고 및 작성 요령

### • 원고 기고

1. 마 감 일 : 매년 1월 10일
2. 내 용 : 영어학 및 영문학에 관한 논문, 번역, 또는 서평
3. 분 량 : 분량은 한글 A4 15-20매, 영어 5000-6000 단어로 한다.
4. 제출방법 : 워드프로그램 (HWP, MS Word)으로 작성 한 파일 제출
5. 제출자격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취득자, 박사과정 및 수료자,  
박사학위 취득자, 시간강사, 교수
6. 제 출 처 :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효원어문학』 편집위원(학과사무실 전화 051-510-1510)

### • 원고 작성법

1.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문에 한자와 영어를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로 처리한다. 단 논문 제목은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외국어 고유명사 및 책이름은 한글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영문 표기를 제시한다. 책이름이나 잡지 이름은 겹낫표(『 』), 논문이나 단편은 낫표(「 」)로 묶는다. 외국어의 경우는 번역하되, 처음 사용할 때 괄호 속에 외국어 표기를 병행한다. 단, 영어학 논문의 경우에는 『언어』(Language)의 최신판 양식에 준한다.
4.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외국어 인용문은 번역하되, 운문의 경우 원문을 번역문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단 영어학 논문에서 영어 구절이나 문장을 분석하는 경우, 해당 구절이나 문장은 번역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의 규정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의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제 7판과 『언어』(Language)의 최신판을 따르되, 국내 서적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 (1) 인용문헌(Works Cited)으로 처리하는 경우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자, 지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 (2) 각주(footnote)로 처리하는 경우(가급적 피하기 바람)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자 (지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 (3) 온라인 자료, 표, 그림 등 기타의 경우는 한국영어영문학회의 『논문작성 요령』(2016)을 따른다.
6. 인용문헌은 논문의 끝에 반드시 첨부하되, 영어로 작성한 논문은 ‘인용문헌’이라는 용어 대신에 ‘Works Cited’로 표기하며, 국내 문헌과 외국 문헌을 함께 인용 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모든 문헌정보를 영어로 표기하여 전체 인용문헌의 저자의 성을 ABC순으로 한다.
7. 한국어 논문과 영어 논문은 모두 150 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을 논문 앞에 붙인다.
8. 주제어(Key words)는 논문 요약문(Abstract) 바로 하단에 5개를 영어로 표기한다.



## 효원영어영문학

제42호

2024년 2월 19일 인쇄

2024년 2월 22일 발행

**발행**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인쇄** 만수출판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14-7

Tel : (051) 513-4042, 2662

E-mail : mansu4042@naver.com

(비매품)